

Sulwhasoo

Vol.63 July/August 2014





辨芬

雪花秀

스킨케어의 모든 성분을 감싸주어
맑은 윤기로 기품 있는 인상을 만든다

맑은 윤기가 흐르는 피부는 인상까지 달라 보이게 합니다
스킨케어의 효능 성분을 피부에 단단히 지켜주는 설화수 미안피니셔-
설화수만의 녹삼효™ 성분이 스킨케어 효능을 극대화해주고
피부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 스스로 빛나는 맑은 윤기를 완성합니다
현명한 스킨케어 마무리로, 맑은 윤기가 만드는 인상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미안피니셔

Sulwhasoo



辨芬
雪花秀

Sulwhasoo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미안피니셔



왼쪽 페이지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죽전
조충익 선생의 연화선과 금속공예가 김현성
작가의 미니 볼 오브제 by 엘스토어.
오른쪽 페이지 죽전 조충익 선생의 연화윤선
과 금속공예가 김윤진 작가의 접시와 잔 by 엘
스토어, LVS CRAFT



왼쪽 페이지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죽전 조충익 선생의 연엽선과 노인아 작가의 금속 화기 by 아원공방.

오른쪽 페이지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김동식 선생의 나전황칠선과 아르마니 카사의 금속 트레이, 하우스닥터의 철제 함 by 에잇컬러스.

청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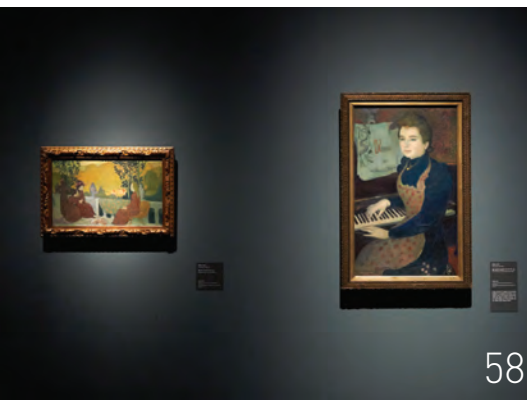
As the cool breeze blows away the sweat accumulated from a hot summer day, the cool fan and cold metal artworks are combined to create “coolness.” “Cool” expresses clear and chilly conditions. The traditional Korean fans with the elegance and simplic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for the hot summer, coupled with contemporary artworks made with the cold and chilly metal, express the harmony of “coolness” and the beauty of the skin that stays clear, cool, and elegant even in the hot, humid summer. Fan masters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0) Dong Sik Kim and Choong Ik Cho have adopted and preserved the tradition by creating round, unfoldable fans and foldable fans with paper or silk attached to the frame. The various challenges of contemporary metal craftsmen, who have presented original metal crafts using various metal materials, harmonize different forms and heterogeneous materials for the aesthetic of new balance.

시원한 바람에 무더운 여름날의 불쾌함을 지워버리듯,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와 차가운 금속성의 작품이 어우러져 ‘청량(淸涼)’을 이룬다. ‘청량하다’는 맑을 청(淸), 서늘할 량(涼)이 조화를 이뤄, 맑고 서늘한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단아함과 간결함의 멋을 담아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우리 전통 부채와 차갑고 서늘한 금속성 소재의 현대 작품이 만나 무더운 여름날에도 맑고 서늘한, 정갈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완성을 ‘청량’의 조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김동식과 죽전 조충익은 부채살에 종이나 명주실로 짠 비단을 붙여 만든 둥근 모양의 단선(單扇)과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접선(接扇)을 만들어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채로운 금속성 소재를 이용해 감각적인 금속 소품을 소개한 현대 금속공예가들의 다양한 도전은 작품의 형태와 이질적 소재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균형의 미학을 완성했다. S

표지는 죽전 조충익 선생의 대국화선과 금속공예가 김동현 작가의 출당. 뒤표지는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김동식 선생의 윤선-달마도와 금속공예가 박주형 작가의 The moment of pleasure 시리즈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세트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자혜, 황남주 작품 김동현 작가(www.artercrafter.com), 박주형 작가(010-9098-0298), 아원공방(02-735-3482), 아르마니 카사(02-540-3094), 엘스토어(02-790-8408), 에잇컬러스(070-8654-3637), 전주 부채문화관(063-231-1774), LVS CRAFT(02-2234-7475)





한국 문화 읽기	장구 Janggu	06
집안 단장	여름을 들이다	10
몸 단장	단아한 아름다움을 담은 자태	12
피부 섬기기	여름, 빛과 광을 되찾은 피부의 비밀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희망의 손짓, 크로스오버 가수 신민희	18
격조 높은 삶	한옥을 들여다보다	24
삼짇날 엿보기	한옥, 한민족의 집	26
어우러지다	한옥 마루에서 본 풍경	30
살펴보다	궁궐 이야기	38
세밀하게 보다	선명한 여름의 색, 赤	40
설화수의 사계	바다에서 美를 보다	48
월드 헤리티지	온천의 도시에서 물의 도시로 성장하다, 비텔(Vittel)	52
아트 클래스	인상주의를 다시 보다	58
잇다	우주의 질서 담은 한국 전통 나침반 '윤도', 5대를 잇다	64
설화보감	차 한잔에 더위를 잊으리니	70
설화수를 말하다	물속에 깃든 아름다움	76
설화도감	그 시절, 여름	80
미색보감	건조한 여름 피부, 오아시스를 만나다	84
설화과학	선조들이 전해온 여름 나기 비법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 July/August 2014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율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매거진입니다.



Sulwhasoo, conveying the Asian philosophy and the Korean wisdom, expresses the aesthetic of harmony and balance. The cover of this issue of Sulwhasoo Magazine explores the aesthetic of a harmonious blend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created by the artworks of Korea's traditional masters and contemporary artists. The July/August issue presents the "coolness" with the fans of fan masters Dong Sik Kim and Choong Ik Cho,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0, and the artworks of contemporary metal craftsmen.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의 지혜를 담은 설화수는 조화와 균형의 미학이 담겨 있다.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한국 전통 장인과 현대 작가의 작품이 빛어내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어울림의 미학을 찾아보고자 한다. 7/8월호에는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김동식 선생과 죽전 조충의 선생의 부채와 함께 현대 작가의 금속 공예 작품이 어우러져 '청량(淸凉)'을 이룬다.

●발행인·서경혜 ●편집인·류재현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 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문선영 02)879-3541
 ●편집·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미경 남윤진 디자인·조유형 ●발행일·2014년 7월 1일(통권 제63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lng Process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구 Janggu

신명 나는 리듬 한 판 '덩더꿍'



우리의 고유한 음악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물놀이는 쟁과리와 징, 북, 장구 네 가지 악기로 구성되는 음악이다. 그중 장구는 사물놀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쟁과리나 징처럼 소리가 맑고 크지는 않지만 소리를 할 때나 반주를 할 때 다른 악기 뒤에서 박자를 짚어주며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다. 이처럼 장구는 음악의 기초를 마련하고 '거들어주는 악기' '뒷받침해 주는 악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야말로 장구는 '악방의 감초격'인 악기로써, 장단을 맞출 때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장구는 뒤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제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장구만 단독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반주악기 없이 혼자만의 연주와 장구 장단에 맞춰 춤을 선보이는 등 개인의 기량을 맘껏 뽐내며 연희할 수 있는 연주를 '설장구'라고 부른다. 설장구는 농악의 개인 놀이 중에서 가장 연륜이 많고 능숙한 장구 잡이가 자신의 가락과 춤사위를 최대한 발휘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다채로운 가락과 춤사위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민속 예술의 한 형태다. 또 설장구에는 '으뜸 되는 기예와 재주를 가진 장구수(手)'라는 의미와 '가장 멋들어지게 노는 장구 놀음'이라는 의미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기예를 팔아 생존을 영위했던 유랑집단인 남사당패의 놀이 중 풍물놀이의 설장구가 주목할 만한데, 잘 알려진 김덕수 사물놀이의 김덕수 선생도 설장구의 고수라 할 수 있다. 설장구는 화려한 가락의 변주만이 능사가 아니며 춤과 가락, 흥이 하나로 녹아들어 어우러져야 한다. '둥둥둥' 둔탁하지만 경쾌하고 신명 나는 리듬소리는 어깨를 덩실덩실 들썩이게 만든다.

장구는 두 개의 오동나무 통을 가는 조롱목으로 연결시키고 통의 양편은 가죽으로 메운다. 본래 장구 가죽으로는 개가죽과 노루가죽을 사

Samulnori, globally known as the traditional music of Korea, is produced by four instruments: Ggoenggwari, Jing, Buk, and Janggu. Janggu is one of the major instruments used in Samulnori. Its sound is not as clear and loud as that of Ggoenggwari or Jing, but it quietly keeps its position to guide the rhythm when someone sings or plays it as an accompaniment. Janggu is the instrument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music to 'help' or 'support.' It is literally a 'sidekick,' but is an important instrument that is never left out when playing rhythms.

Janggu can produce a sound weaker than that of other instruments, or perform all by itself. The performance of Janggu with dancing for banquets without any accompaniment to demonstrate one's artistic talents is called Seoljanggu. Seoljanggu is performed by the most experienced and skillful Janggu performer as part of a solo performance of Nongak to demonstrate his/her utmost level of rhythm and dance. It is a form of folk art that boasts artistic excellence in rhythms and dancing. It also means 'the Janggu performer with the highest level of techniques and skills' and 'the most beautiful Janggu performance.' Among the performances of Nam-sadangpae, which was a group of nomadic performers who survived by performing their unique techniques and skills, Seoljanggu of Pungmulnori was the most notable. The popular Sir Duk Soo Kim of Duk Soo Kim Samulnori is also a master of Seoljanggu. Seoljanggu is not just about the variation of colorful rhythms, but it should also blend the dance, the rhythm, and the excitement into one. The blunt yet uplifting sound of Janggu makes you move your shoulders in a dance.

Janggu connects two barrels of Paulownia coreana with thin gourd



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조상들은 왼편 가죽, 즉 북편은 개가죽을 쓰고 오른편 가죽, 즉 채편은 노루가죽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편은 흰 말가죽을 쓰고 채편은 보통 말가죽을 쓴다. 북편은 두꺼워서 낮은 소리가 나고 채편은 얇아서 높은 소리가 난다. 이렇듯 가죽의 재료, 팽창 정도에 따라 음정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구는 독특한 소리를 자아낸다. 장구는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내므로 천지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민족성을 담은 악기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장구를 쳐야 춤을 춘다' 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가에서는 시시때때로 팽과리, 징, 북, 장구를 울리며 농사를 서두르기도 했고, 저갯거리에서는 민요 한 곡조에 장구가 함께 울리는 일이 많았다. 특히 농악놀이는 주로 여름에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농사철이 되면 농기를 앞세운 일꾼들은 농악을 치면서 일터로 가고, 돌아올 때에도 농악을 치면서 돌아온다. 일터에서는 일을 한 뒤에 참을 먹거나 막걸리를 마시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장구를 치면서 한바탕 여흥을 하고 다시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농민들이 풍년이 되어서 그 일을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뜻에서 장구, 북, 팽과리, 징을 치며 뛰고 돌며 자신을 잊어버려 흥을 주체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분위기를 흐뜨러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악기가 바로 장구다.

모든 사람들이 장구 소리만큼이나 흥을 돋우며 신명 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만약 우리 소리, 우리 악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새 리듬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S

에디터 남윤진 사진 문성진 도움 받은 곳 고흥국악기연구원(02-763-3508), 성일국악사(02-3672-3907)

strings, and the two ends of the barrels are covered with leather. The best types of leather are dog skin and roe skin. Our Korean ancestors used dog skin for the left side, called Bukpyeon, and roe skin for the right side, called Chaepyeon. Today, white horse skin is used for Bukpyeon, and regular horse skin for Chaepyeon. Bukpyeon is thicker to produce lower notes, and Chaepyeon is thin to produce higher notes. Their interval depends on the type and extension of the leather, so Janggu can be made to play unique sounds. Janggu makes two intervals at the same time to reflect the national character of Koreans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for balancing of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s.

As expressed in the traditional proverb of Korea, "Dance only when Janggu is performed," farm households occasionally played Ggoaenggwari, Jing, Buk, and Janggu to speed up their farm work, and a Minyo (folk song) often echoed with the sound of Janggu in the town. Nongaknori was often played in summer. The farmers carried their farming tools and played Nongak while going to work in the fields, and returned after work still playing Nongak. At work, they had snacks or drank rice wine in the middle of the day, during which they usually took some time to enjoy while playing Janggu. They also played Janggu, Buk, Ggoaenggwari, and Jing to enjoy and congratulate themselves on their good harvest. They often ran and turned until they got lost in the excitement. Janggu is the instrument that must not be missed to spice up one's mood and enrich sound.

Everyone hopes to live a life as uplifting and exciting as the sound of Janggu. Once you listen to the sounds of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you will find yourself dancing to the rhythm before you know it.



1

여름을 들이다

더워진 날씨 덕에 집 안 온기는 후끈후끈하다. 한여름 집 안 온도와 체감온도를 동시에 낮춰줄 대나무 소품들을 모았다.



2



3



4



5



6

1 시원함이 묻어나는 꽃 모양의 대나무 캔들 홀더는 최선희 작가. 2 대나무 잎사귀가 들어간 캔들 홀더는 메종드실비. 3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보석함은 최선희 작가. 4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세련된 디자인의 스피커는 렉스코리아. 5 무엇이든 들어갈 것 같은 대나무 도시락은 정소영의 식기장. 6 대나무의 시원한 느낌과 도자기의 은은한 느낌이 묘하게 매치된 2인 찻잔세트는 렉스코리아.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계절, 여름이다. 여름은 모두에게 뜨거운 계절이지만 그 더위를 이겨낼 방법은 각자의 몫이다.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하지 말자. 소품 하나만 바꿔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 활용했던 대나무, 그거면 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대나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 소품으로 제격이다. 더운 여름에 집 안 곳곳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고마운 소품이다. 대나무의 시원한 자태가 그대로 느껴지는 소품들은 공간을 더욱 기품 있게 만든다. 방금 자연에서 튀어나온 듯 내추럴한 소품 하나로 시원한 여름 분위기를 살리기에 충분하다.

대나무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죽부인을 낀 채 낮잠을 청하는 건 어떨까. 대나무 소품으로 집 안 온도를 내리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자. S

에디터 남윤진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렉스코리아(02-968-4321), 로소룸(02-545-5417), 메종드실비(02-518-2220), 송경근 작가(<http://mysticbamboo.com>), 스칸(02-3444-0608), 최선희 작가(www.오죽공예.kr),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LVS CRAFT(02-2234-7475)



7



8



9



10



11



12

7 곡선이 아름다운 백자 주병은 LVS CRAFT, 대나무의 시원함이 묻어나는 볼과 플레이트는 스칸. 벽이나 천장에 근사한 그림자를 만들어줄 대나무 조명은 로소룸. 8 옷칠을 한 세련된 디자인의 포크는 정소영의 식기장. 9 빈티지한 느낌의 빗자루는 메종드실비. 10 선반의 나뭇결이 은은한 빛과 어울리는 조명은 송경근 작가. 11 대나무의 자태가 그대로 느껴지는 스탠드는 송경근 작가. 12 여러 가지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컵은 렉스코리아.



단아한 아름다움을 담은 자태

여름과 궁합이 딱 맞는 장신구를 찾았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단아한 매력을 지닌 옥을 소개한다.



1 꽃이 여러 개 달린 옥 브로치는 가원공방. 2 사각 프레임의 세련된 비취 팔찌는 제크래프트. 3 네크라인을 따라 편안함과 아름다운 곡선이 공존하는 옥 장식 목걸이는 제크래프트. 4 금과 옥, 진주가 믹스된 나비 모양의 브로치는 아원공방. 5 옛스러운 문양을 새겨놓은 옥 보석함은 가원공방. 6 은은하고 신비스러운 빛의 옥과 상아가 믹스된 브로치는 제크래프트.

불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나며 신비한 색을 지닌 옥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몸, 의복을 장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장신구라 할 수 있다. 옛 선조들은 옥을 몸에 지니고 장식하면 약효가 나타나고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 옥을 가장 아끼고 애용해왔다.

옥은 왕실과 귀족들이 사랑하는 보물 중 하나였다. 옥벽(玉璧), 옥규(玉圭), 옥찬(玉瓚) 등 옥으로 만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이라고 했다. 옥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여자들은 늘 옥을 가까이 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옥 장신구를 항상 착용했다. 비녀와 같은 머리 장신구뿐만 아니라 장도와 반지 등의 신체 장신구에도 착용해 시원함을 더했다.

착용했을 때 시원한 색이래서 여름철에 더욱 빛나는 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받는 장신구 중 하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옥 장신구를 이용해 우아한 자태를 뽐내보자. S

에디터 남윤진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814-0250), 마이앤코(031-381-0077), 아원공방(02-735-3482) 제크래프트(02-511-1219)



7



7 구름 모양의 옥 작품은 가원공방. 옥으로 만든 브로치와 사각 프레임의 비취로 만든 팔찌는 제크래프트. 불투명한 보석함과 쌍가락지. 꽃 브로치는 가원공방. 8 금과 옥이 믹스된 고급스러운 용 모티브 반지는 아원공방. 9 은은한 빛의 원석이 매치된 브로치는 마이앤코. 10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내줄 옥과 금이 믹스된 장신구는 제크래프트. 11 레드 컬러가 포인트인 꽃 반지는 마이앤코. 12 꽃 모양의 떨짐은 가원공방.

여름, 빛과 광을 되찾은 피부의 비밀

강렬하고 무더운 여름철, 손상되고 탁해지기 쉬운 피부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 밝은 톤의 빛을 가꾸어 결을 살리고 맑은 윤기를 더해 본래의 맑은 빛을 되찾기 위한 여름철 안색 케어 프로젝트.



장기간 여름 휴가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면, 당신의 피부도 과연 정화되었을까? 오히려 그 반대다. 여름철 휴가를 다녀온 뒤 피부톤이 광을 잃고 탁해지거나 노랗게 변했다면 전에 없던 기미와 색소 침착이 생긴 때문. 피부톤 변화와 다크 스팟 생성은 피부가 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유독 피부톤 노화 현상이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외선과 외부 열 때문이다. 자외선은 크게 UV-A, B, C 세 종류로 나뉘며, A와 B는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피부 탄력 저하 및 주름 생성, 피부톤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열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는 콜라겐 당화현상에 의한 것으로, 뜨거운 불에 의해 당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당이 갈변하여 피부 표피에 검게 착색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는 여름철 자외선, 적외선 등 열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화사한 빛이 도는 안색으로 만들어주는 한방 미백에센스다. 피부 속 노란기를 개선하여, 피부를 투명하게 가꾸어 주는 것. 자정미백에센스는 백삼사포닌, 백화사설초, 백삼다당체로 구성된 3가지 한방 성분의 자정삼백단이 함유되어 피부 밝기, 피부톤, 투명도를 개선해 준다.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환한 피부톤으로 만들어주는 백삼사포닌은 세계 최초 백삼 유래 한방 미백 성분으로, 기미 생성을 예방한다. 기적의 식물로 불리우는 백화사설초는 피부 에너지를 끌어올려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백삼다당체는 백삼 1000kg중 70kg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물질로, 칙칙해진 피부를 투명하게 가꾸어 준다.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화사한 빛의 안색으로 가꾸어주는 미백 에센스인 자정미백에센스. 은식기는 모두 제크래프트.

In summer, you clean and purify your tired mind through a vacation. Do you also purify your skin then? On the contrary, your skin loses radiance and becomes dull or yellow with dark spots and pigmentation after your summer vacation. The change in your skin tone and the formation of dark spots show that your skin is aging. Sulwhasoo Snowwise EX Whitening Serum is the skin whitening serum formulated with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that cool off the heat on the skin caused by UV rays, IR rays, and aging in summer, to transform dull skin into clearly radiant skin. It reduces skin yellowing and more beautiful. Snowwise EX Whitening Serum contains Snowwise Tri-white Complex™, which is formulated with white ginseng saponin, White Cloud Grass™, and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to improve the skin's brightness, tone, and clarity from deep within.

White ginseng saponin, which inhibits melanin formation for a brighter skin tone, is the world's first whitening ingredient extracted from white ginseng. It prevents dark spots at the source and keeps them from spreading by blocking melanin transmission. White Cloud Grass™, known as the miraculous plant, replenishes the energy for much livelier skin.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reduce the saccharification of collagen to clarify the skin. They are a rare substance, as only 70 kg is extracted from 1,000 kg of white ginseng, but it effectively revitalizes skin tired from too much exposure to light and solidifies the corium to prevent collagen damage under UV rays.

In summer, your skin is easily pigmented by UV rays and heat and become dull and dark. The radical changes in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also deprive your skin of moisture and radiance inside.



1500년을 이어온 미안수의 지혜를 토대로 설화수
의 과학이 더해진 미안피니셔.
노인아 작가의 메탈 접시 아원공방.

여름철엔 우리의 피부가 자외선과 외부 열로 인해 피부톤 노화가 쉽게 일어나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누렇게 변하며, 급격한 기온과 습도 변화로 인해 피부 속 수분과 윤기 또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여름철 수분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름철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안색부터 변한다. 그렇다면 여름철 안색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정미백에센스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피부톤 개선 효과를 주는 자정미백에센스와 함께 여름철 수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자연스러운 윤기를 지속시켜주는 미안피니셔가 바로 그것. 미안피니셔는 피부를 더욱 탄탄하고 촉촉하게 개선하는 윤기 보호막 기능으로 인상까지 달라 보이게 한다. 특히 아침,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영양막 효과와 보습 유지, 앞서 바른 스킨케어 성분의 효능을 올려주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매끄러운 질감의 텍스처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보습 효과를 통해 피부의 촉촉함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피부결을 개선해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번 여름철엔 맑고 환한 안색을 만들기 위해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와 미안피니셔로 여름철 집중 케어를 시작해 보자.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 과정 중에 자정미백에센스를 사용해 피부톤을 개선하고, 마무리로 미안피니셔를 사용하여 윤기 보습막으로 하루 종일 빛나는 인상을 완성해보자. 보석처럼 반짝이는 투명한 광채를 머금은 피부 톤과 함께 맑은 윤기로 다듬어진 기품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다. S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아원공방(02-735-3482), 제크래프트(02-511-1219)

Hydrating care is not just for winter; it is also absolutely necessary in summer. If you lack moisture in summer, your complexion changes first. What else do you need to care for your complexion in summer besides Snowise EX Whitening Serum?

Besides Snowise EX Whitening Serum for skin tone correction, you will need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to form a protective layer on your skin to achieve natural radiance.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forms the radiance protective barrier for firmer, more hydrated skin to make you look visibly different. Use it for the last step of your skincare routine each morning and evening to achieve a nourishing skin barrier, to hydrate and whiten your skin, and to fight skin aging. Its rich texture gently wraps the skin to form a protective barrier, and the powerful hydration at the last step of your skincare routine retains moisture to leave your skin full of life and in the best condition for makeup application.

Locsamhyo™, the major ingredient of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is formulated with green tea and ginseng using the traditional processing method interpreted the modern way, to synergize with the common ingredients and the signature ingredients of Sulwhasoo to leave your skin clear, hydrated, and radiant.

This summer, start intensive care regimen with Sulwhasoo Snowise EX Whitening Serum and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for a bright and clear complexion. Combine Snowise EX Whitening Serum with your regular skincare routine each morning and evening to improve your skin tone, and finish with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to form a hydrating barrier on your skin that will leave it glowing all day. You can have the skin tone with clear radiance that sparkles as a gemstone along with the elegance of appearance refined with clarity.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희망의 손짓
크로스오버 가수, 신문희

누군가에겐 첫사랑이 온전한 '생애 사랑'이듯, 때론 노래 한 곡이 한 가수에게는 꽤 묵직한 의미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음악적 색깔부터 그 노래를 알리는 역경까지, 가슴 떨리는 이야기가 음표 사이사이에 묻어 있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였던 낯선 땅 우크라이나에서였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멈춘 여행 프로그램에서, 모니터 속 그녀는 흑해의 예술도시 오데사를 거닐고 있었다. 수많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서로의 영감을 주고받던 오래된 터전, 기억을 되짚어보면 14년 전 그녀 자신이 오데사 국립음대에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던 공간이었다.

아직 우리에게 이름이 낯선 오데사 국립음대의 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이란 대개 '차이콥스키가 교수로 재직했던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명성 자자한 곳으로의 그녀의 입성은 그야말로 화려한 시작이었다. 당시 '최연소' '최초의 동양인 교수' 등의 부연 설명들이 그녀의 인터뷰 기사마다 마치 본론처럼 앞서기를 반복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녀는 교수로서는 어린 30대 초반이었고 무엇보다 젊고 아름다웠다(지역에서 그녀는 코리안 뷰티로 불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존중이 정말로 대단해요. 제가 다른 교수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다 보면 백발의 노신사가 손등에 키스를 하고 예의를 표하곤 했으니까요. 속으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죠."

최초의 동양인 교수가 아니라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대중에게 그녀를 각인시킨 순간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피날레 공연이 아닐까 싶다. 연신 새의 날개처럼 풍성한 하얀색 드레스를 바람에 날리며 자신의 대표곡인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고 마지막 가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터졌다.

그사이 그녀는 성악가에서 크로스오버 가수로 음악 색깔을 바꿨고 활동무대도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터전을 옮겼다. 시간을 아주 짧게 축약한다면 크로스오버 음악이 채 국내에 도입되기도 전인 2004년, 1집 앨범 〈Whispering Of The Moon〉을 선보였고, 이어 2집과 3집에서는 더 대중적이고 다양한 곡을 담았다. 첫 앨범을 내놓은 시절만 해도 크로스오버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때였다.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에 놀라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삶의 기질 자체가 크로스오버와 꽤 잘 맞아떨어졌다. 크로스오버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장르를 합치고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음악이다(오페라 아리아를 팝적으로 부르는 팝페라와는 다르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해야 도전이 가능하고, 이것을 음악적 결과로 이끌어낼 줄 아는 재능과 끼도 필요하다. 단순히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곡에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음표 사이사이에 끼워넣는 뮤지션이자 제작자여야 가능한 분야다. 아귀가 맞듯, 그녀가 딱 그러했다.

"두 영역을 융합할 때의 결과물이란 항상 기존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거나 더 새롭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하지요. 특히 유럽에서 크로스오버의 개념은 클래식 계통에서 탄탄한 실력을 겸비한, 가령 바네사 메이처럼 클래식 실력이 뛰어난 젊은 뮤지션들이 자신의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도전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클래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력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다. 이 시간들을 단순히 '음악적 색깔을 바꿨어요'라고 단순히 정리하기엔 지나온 시간이 꽤 길고 편치 않았다. 현실적인 음악활동에서도 그랬고 심리적인 방어막의 소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불거졌다.

목청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엔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일진대 그 본업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대가 변해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리듬이 반복되는 쉬운 음악에 익숙해졌고 새롭거나 낯선 음악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연히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에는 나설 기회조차 쉽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안정적이고 화려한 오데사 국립음대의 교수가 아니라 그저 비주류 음악을 하는 가수였으니까.

고심 끝에 내놓은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무척 냉정했다. 이 부분에서는 꽤 몇

가지 이야기가 한 목소리로 나왔다. 우선 노래 자체가 자극적인 시대와 맞지 않게 너무 공익적이라는 우려(제목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가), 자연히 이런 노래는 공공기관 행사에나 걸맞는다는 편견이었다. 심지어 이 곡에서 크로스오버를 시도한 분야는 성악과 국악, 과감히 국거리장단을 끼워넣었는데 사람들은 성악과 국악의 조화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독한 말을 쏟아냈다.

성악에 국악을 접목시킨 이유는 영국의 민속음악인 켈틱음악을 접하고 나서였다. 당시에는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외국의 유명한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로열티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녀는 ‘영국에 켈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국악이 있으니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4년 만에 겨우 찾아내 그녀 스스로 제작한 노래가 〈아름다운 나라〉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나라〉가 너무 국가주의적인 노래가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의미로 바라본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 가사에는 어디에도 백두산, 무궁화, 우리나라와 같은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와 같은 느낌의 노래가 될까 싶어 일부러 피했죠. 제가 이 노래를 매우 절실하게 제작하고 부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노래 가사를 하나로 축약한다면 주저 없이 내세울 수 있는 단어는 ‘희망’이다. 지구 어디에 있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외치고자 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건 그녀 자신의 이야기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듯, 그녀 자신도 힘겹지만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음악적 활동을 놓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아름다운 나라〉는 국가적인 이슈가 터지면 사람들의 입에서, 마치 스테디셀러처럼 다시금 불려지고 올려진다. 요즘 아이돌의 노래생명이 기껏해야 3주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녀의 음원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아마도 그녀가 이 노래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강렬함과 진실성이 통한 덕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아홉 살 소녀의 심장에서 시작된 꿈의 결실이기도 했다.

“아홉 살이었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성악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꿈꾸었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히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를 헤메면서 20~30대를 보냈고 최연소 등의 화려한 타이틀을 따기 시작했죠. 그 과정은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증명해 주기는 했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름다운 나라〉를 내놓고 사람들과 노래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뮤지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공연 팸플릿을 짤 채우던, 길고 긴 타이틀로 구축된 화려한 경력보다 대중과 노래 하나로 소통하는 순간이 훨씬 가치 있다는 사실, 긴 세월의 거름망을 통해 남는 것은 그 한 가지였다. 교수의 지위나 성악가로서의 유명세가 아니라 오직 목청으로 무대에 서고 자신의 노래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갈망에 대한 해답이었다.

요즘 그녀는 인터뷰를 할 때면 자신의 거창한 과거 타이틀은 제발 생략해 달라고 강조한다. 덕분에 그녀의 꿈은 한결 가벼워졌다. 지금, 그녀는 오롯이 뮤지션 신분이며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가수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은 거추장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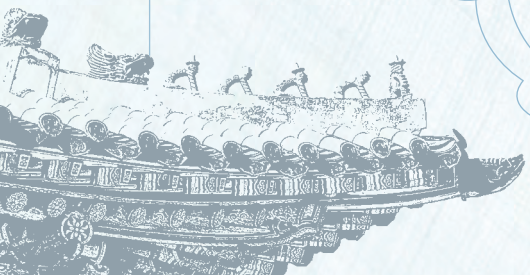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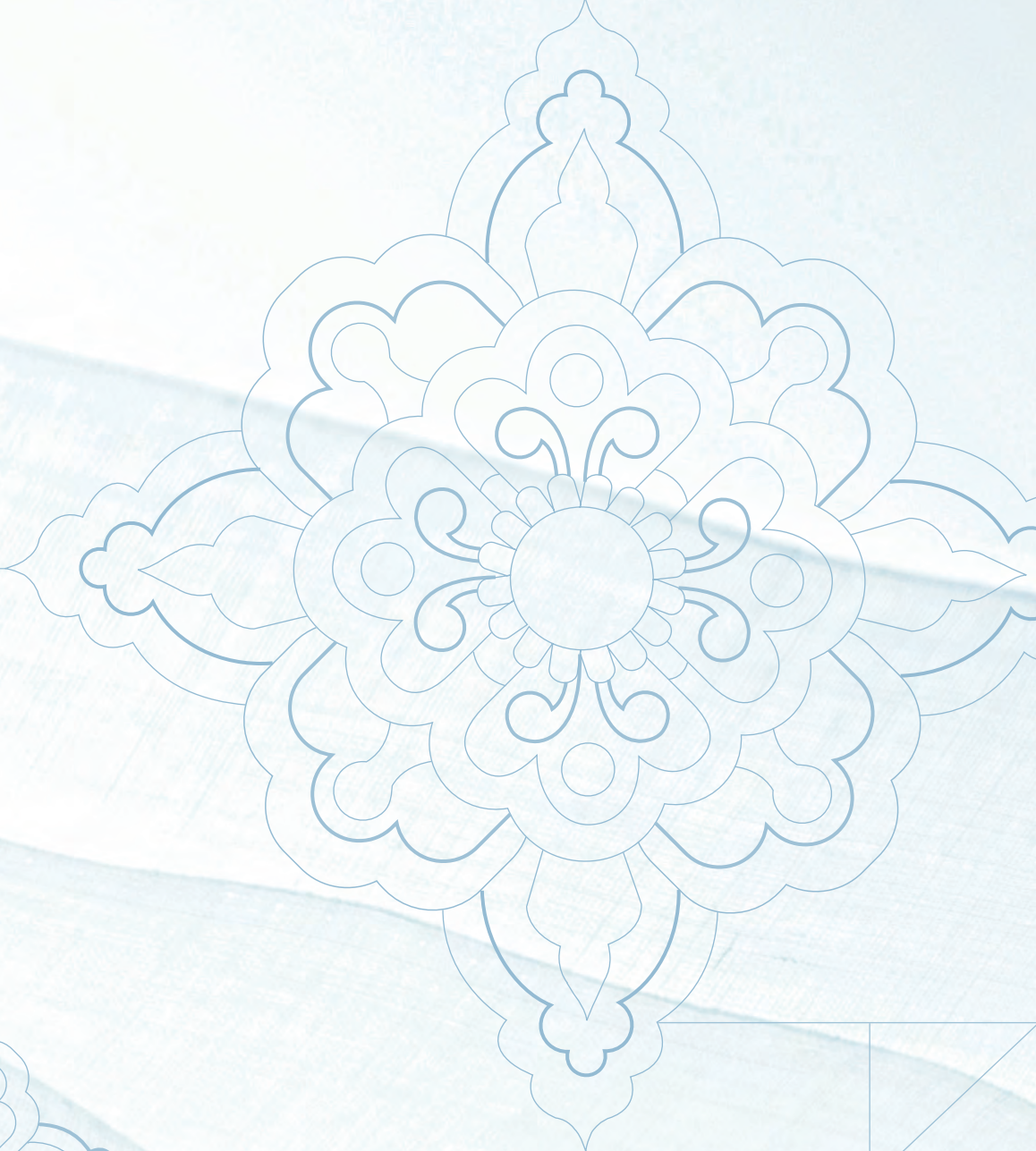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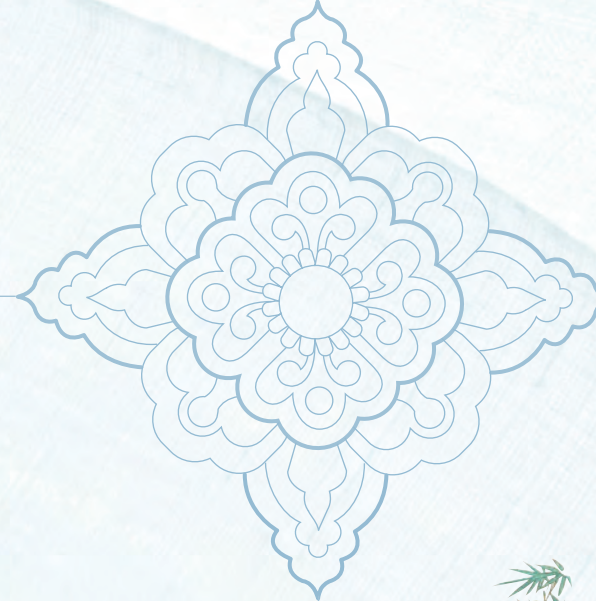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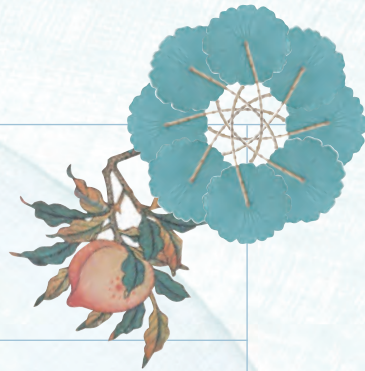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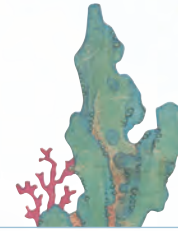
“오직 노래로만 다가가고 싶어요. 노래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죽기 전에 사람들 가슴에 남는 노래를 꼭 남기고 싶어요.”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에스휴 태훈(02-3448-3007) 메이크업 에이비이봄 박선민(02-516-8765) 도움 주신 곳 케이킴(02-543-3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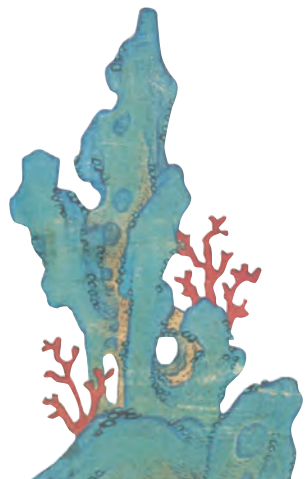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흙과 나무, 돌을 사용하고,
햇살과 바람, 사계절의 기운을 고려하여 인간이 편안하게 살도록
지어진 집, 한옥(韓屋). 방과 방을 연결하는 마루는 공간에 바람길을
만들어 여름엔 시원하고, 아궁이에서 뿜 불로 방의 온도를 높이는
온돌을 통해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한옥을 들여다본다.



한글어음 비뮈어구퍼구



한옥, 한민족의 집

‘집’은 주거용 건축물인 동시에 문화의 결정체다. 거기엔 한 민족의 자연관과 인간관, 생활사가 수천 년의 무게로 응결되어 있다. 우리의 한옥엔 어떤 생각들이 어떤 모양으로 덧쌓여 있을까? 슬며시 빗장을 열고 한옥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

자연을 담은, 자연을 담은

옛사람들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개울 너머로 너른 들판이 펼쳐지는 곳에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농경민족의 심성은 집짓기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옥의 생김새는 결코 자연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다.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궁색하지도 않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집! 이게 바로 한옥의 첫 번째 특징이다.

한옥은 지붕의 선부터 자연을 빼닮았다. 옛집이나 마을의 사진들을 보면 초가지붕이든 기와지붕이든 뒷산의 능선을 닮았다는 게 쉬이 확인된다. 한국 조형미의 백미로 꼽히는 그 매끄러운 곡선은 붓으로 그어놓은 부드러운 획 같기도 하고, 그윽하게 흘러가는 진양조 장단 같기도 하다. 가까이에서 본 지붕의 느낌은 또 사뭇 다르다. 정면에서 보면 갖을 놀러쓴 선비의 절제된 몸가짐이 연상되고, 추녀 밑에서 올려다보면 하늘로 살짝 치솟은 품세에서 한민족 특유의 흥과 풍류가 느껴진다.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이 땅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오롯이 담아낸 문화적 상징물이 바로 한옥의 지붕이다.

재료들 또한 더없이 친자연적이다. 목조건축은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한옥처럼 흙, 돌, 종이 같은 자연물들을 많이 사용한 건축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돌로 만든 구들의 독창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거니와, 바닥과 벽과 지붕에 모두 흙을 바르는 것도 한옥만의 손꼽히는 특징이다. 기와 밑에 흙을 바르는 건 중국 기와집과 한옥 기와집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한데, 위아래와 사방에서 열기와 냉기를 차단해 주는 흙 덕분에 옛사람들은 삼복의 더위와 엄동의 추위를 두루 견디며 살 수 있었다. 집은 또한 자연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서, 안팎이 구분되지 않는 싸리나무 울 틈새나 낮은 담장 너머로 바람이 제집처럼 드나든다. 밖에서 바라본 지붕의 선은 그 모양 그대로 뒷산으로 내달리고, 대청에

서 내다본 마당은 눈길 가로막는 법 없이 곧장 하늘로 이어진다. 서양의 건축은 대부분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는 이의 시선도 당연히 건물 바깥에 머문다. 이와 달리 한옥은 대청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담고 있다(이상현, <즐거운 한옥 읽기, 즐거운 한옥 짓기>).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완벽함보다는 집에서 자연으로의 제한 없는 확장과 일치를 추구했다는 뜻이다. 이를 가장 확연히 드러내는 게 바로 송순(1493~1583)의 시조다. 자연을 담은 집에서 자연을 담은 삶을 살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멋들어지게 표현한 노래는 아마 없을 것이다.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靑風) 한 칸 맡겨두고 /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빛 그림과 바람길

한옥의 구성 원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햇빛과 바람이다. 인위적인 조명이나 냉난방에 한계가 있던 시절, 자연의 빛과 바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집을 집이게끔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 집의 방향과 배치, 지붕의 생김새, 창 위치 등 한옥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유교문화를 반영한 사회적 형식인 동시에, 빛과 바람을 염두에 둔 치밀한 디자인 전략이기도 했다. (임석재, 네이버캐스트 <한옥 미학>)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집이 대부분 남향인 것은 북반구에서 햇빛을 들이기 위한 선택이지만, 옛사람들은 수동적인 해바라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해가 여름에 높게 뜨고 겨울엔 낮게 뜨는 것에 착안하여 그 중간 각도에 창을 낸 것이다. 그러면 여름엔 성가신 햇빛을 물리칠 수 있고, 겨울엔 아쉬운 햇빛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여기에

출생, 혼인, 장원급제, 관직, 회혼례 등으로 이어지는 일생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담은 민화 <평생도(平生圖)> 속엔 선조들의 일생이 한옥을 배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 민화 중 '평생도'는 김홍도가 그린 <모당평생도>와 <담와평생도>가 유명하다. 경기대학교박물관 소장. 아흔아홉 칸 한옥으로 유명한 강릉 선교정은 300년 된 고택으로 전통 한옥이 지금도 잘 보존돼 있다.



왼쪽 페이지 전통 한옥 기옥인 강릉 선교장.
오른쪽 페이지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던 조선시대 사대부
살의 인생행로를 그려놓은 평생도 속엔 혼례를 치르는 모
습, 소과에 응시하는 모습,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잔치를 여는 장면 등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가 마당이 넓
은 한옥이나 사랑방, 대청 마루 등을 배경으로 치러졌다.
경기대학교박물관 소장.



한뫼를 담당하는 건 다름 아닌 처마다. 지붕 처마를 두 각도 사이에 돌
출시키면 수직에 가까운 여름 햇빛은 튕겨내고 비스듬한 겨울 햇빛은
통과시킨다. 한옥은 대개 옆으로 긴 형태라 방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
문에 한겨울에도 충분히 방 전체에 햇빛이 스며들게 된다. 제 땅의 계
절적 특성을 활용한 처마와 창 덕분에, 옛사람들은 짧은 겨울 해를 온
종일 실내에 붙잡아둘 수 있었던 것이다.

한옥의 창(또는 방문)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빛의 농담(濃
淡)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 역할은 한지, 즉 창호지가 맡는다. 반투명
인 창호지를 통과한 햇빛의 농도는 아침저녁으로 바뀌고, 실내의 명암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날이 밝을 무렵엔 푸르스름한 청회색
으로, 한낮엔 뽀얀 젓빛으로, 해거름엔 자줏빛으로 바뀌며 다채로운
명암의 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목화의 농담 기법을 그대로 옮겨놓
은 듯 수시로 바뀌는 빛! 환하거나 은근하거나 포근한 그 빛에 창살의
그림자까지 더해지면 한옥의 실내는 3차원의 캔버스로 바뀐다. 자연
이 그려내는 오묘한 빛 그림이다.

겨울 햇빛만큼이나 질신했을 여름의 바람은 어떻게 불러들였을까? 한
옥 대청에 앉으면 누구나 그곳이 의외로 시원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비결은 바로 창과 문의 위치다. 얼핏 보면 무질서하게 뚫어놓은 듯한
한옥의 창과 방문은 알고 보면 모두 일렬로 늘어서 있어서, 긴 꼬챙이
로 꿰면 가로든 세로든 한 줄로 꿰어진다. 그 길들이 빛의 통로인 동시
에 바람의 통로가 되는 셈이다.

방에 빛을 들일 때 처마가 한뫼를 하듯, 마루에 바람을 부를 땐 마당이
조역을 맡는다. 인위적 구조물을 배제한 한옥의 텅 빈 마당에선 여름
날 더운 공기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채우기 위
해 집 뒤쪽에서 밀려오는 공기가 마루를 통과해 마당으로 이동하게 된
다. 덕분에 나뭇잎이 미동도 하지 않는 무더운 날에도 한옥 마루는 홀
로 서늘할 수 있는 것이다. 한옥의 디자인에 미(美)와 과학과 실용성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한옥의 탁월함이 어디 이것뿐일까. 서로 상극인 나무(마루, 남방식)와
불(아궁이와 구들, 북방식)을 한 공간에 공존시키며 사계절을 버틴 용
합의 지혜, 방에서 방으로 뒤편에서 대청으로 모든 공간들이 막히지
않고 이어지는 순환성, 낮은 담장과 너른 대청으로 상징되는 소통의
심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한옥'이라는 아름다운 공간
이 되는 것이다.

그래 봐야 다 옛날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조금만 더워도 안 되고



조금만 추워도 안 되는 현대식 주택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한옥의 빛
그림과 바람길이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햇빛 한 줄기와 바람 한 줌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온몸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한옥은 여전히
매력적인 집이다. '슬로 시티'와 '슬로 푸드'가 문명적 대안이라면 '슬로
하우스' 또한 그러할 터, 느리고 소박한 삶이 그림다면 한옥으로 가 보
라. 가을날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우러르는 그윽한 시심이 꼭 옛
선비들만의 전유물일 까닭은 없을 테니.

“바람 자니 향 연기 절로 얹게 퍼지고 / 평시에도 눈감으니 세속 인연
드물다 / 가을소리 태만은 시詩 속으로 들어오고 / 밤빛은 끝없이 술
잔 속에 돌아오네 / 가물가물 푸른 등은 작은 집을 머금었고 / 훗날리
는 낙엽은 빈 사립에 쌓이네 / 이따금 개 한 마리 범처럼 짚어대고 / 나
무 끝 별빛들이 옷에 똑똑 떨어지네 (박제가, <청수옥 야좌>).”S

에디터 김미경 글 박경수 사진 왕태균



한옥 마루에서 본 풍경

선조들은 한옥에서 여름을 나고자 마루를 만들었다. 마루는 집의 중심이면서, 집 안 곳곳에 바람길을 터주기도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자, 신을 신지 않고 방과 방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쓰이기도 한다. 슬기로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옥 마루에서 시원한 여름 풍경을 모던한 스타일로 재현하였다.

대청에서 여유를 즐기다

대청(大廳)은 크고 넓은 마루를 의미한다. 보통 민가에서는 4칸으로 이루어졌고, 큰 집의 경우엔 6칸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안채 중앙에 대청이 자리한다. 대청은 집안의 각종 의례를 행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현대 주택의 거실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혼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집안 대소사를 치렀고, 대청의 뒷벽 쪽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도 하였다.

왼쪽 페이지 팔각 비둑판은 비둑코리아. 빈티지 선풍기는 키스 마이하우스. 학과 버드나무 그림, 산수(山水)가 그려진 방석은 장응복 디자이너 작품으로 모두 모노컬렉션.

오른쪽 페이지 37지 종류의 앤티크 소반은 종이나무갤러리. 소반 위 백자 볼, 티컵&소서는 모두 김선미그릇. 모시 그릇담개는 금단제 아트리빙. 패치워크 형태의 쿠션과 방석은 장응복 디자이너 작품으로 모두 모노컬렉션.



시원한여름을나다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선조들은 주로 집 안 대청(大廳)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청은 안채 한가운데 넓게 자리해 안방과 건넌방의 방문이 마주 보고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대청 양옆의 방문을 열어 바람길을 터주면, 통풍이 잘되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다. 여기에 발을 걸어 무더운 여름 햇살을 막아주면 야외로 나가지 않아도 슬기롭게 여름을 날 수 있을 만큼 시원한 공간이 되었다.

왼쪽 페이지 구름 문양이 그려진 젠 스타일의 리넨과 실크 소재 별가리게, 실크 소재 물고기 풍경은 모두 모노컬렉션. **오른쪽 페이지** 장인이 왕골과 실을 한 울씩 정성스럽게 엮어가며 만든 강화 화문석, 왕골로 만든 원형 화방석 모두 강화도령. 원영 김정순 작가의 한지 부채는 종이나무갤러리.





삶의 실용성을 높이다

집 안의 주위를 빙 둘러져있고, 처마 밑에 있어 걸터앉을 수 있는 툇(退)마루는 통로로 이용하거나 방 안에 들어가기 전 잠시 쉬거나 간단한 가사 일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특히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토방에 놓인 섬들을 딛고 올라서면 툇마루다. 방에서 외부와 직접 통하도록 이어진 툇마루는 방안 환기를 위해 방문을 열어놓고 잠시 쉬는 곳이기도 하다.

왼쪽 페이지 양유완 작가의 유리와 왕골로 꼬아 만든 화문석 소재의 보관용 볼은 모두 엘스투어. 왕골 소재 심합은 강화도령. 김선미 작가가 만든 모던한 디자인의 자기 접시는 김선미그릇. 푸른 새 모양 장식품은 우일요.

오른쪽 페이지 레이스 문양의 저고리, 호랑이 발톱 노리개, 분홍 꽃신 모두 차이 김영진.





친목을도모하다

누마루는 조선 후기에 사랑채 바깥에 마루와 누각(樓閣)이 결합된 형태로 지어졌다. 일반 마루에 비해 높게 지어져 지면의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지어졌다. 집안의 어른인 대감이 기거하던 곳으로, 남성 중심 사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양반집에서만 볼 수 있었다. 누마루는 삼면이 개방되어 여름엔 시원하고 바깥 풍경을 관람하기 좋아, 손님 접대나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왼쪽 페이지 듀피온 실크 소재의 보료는 장응복 디자이너의 모노컬렉션 리넨 소재 이불과 한산모시 소재의 목 베개는 빈콜렉션 원영 김정순 작가의 집이식 부채는 종이나무 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광규진 작가가 디자인한 백색 자기 물고기 풍경은 스페이스엄.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고은선(고고작업실) **어시스턴트** 김미라 **도움 주신 곳** 강화도령(032-934-6858), 금단지 아트리빙(02-517-7243), 김선미그릇(02-749-1940), 모노컬렉션(02-517-5170), 바둑코리아(02-433-3100), 빈콜렉션(02-735-5760), 스페이스엄(02-595-1498), 엘스토어(02-790-8408), 우일요(02-763-2562), 종이나무 갤러리(02-766-3397), 차이 김영진(02-333-6692), 키스마 이하우스(02-6237-1033) **장소** 락고재서울



궁궐 이야기

궁궐의 '궁(宮)'은 제왕이 거거하는 큰 건물을 일컫고 '궐(闕)'은 궁의 출입문 양쪽에 설치했던 높은 망루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삼엄하게 보호되는 왕의 집무실 겸 거처가 곧 궁궐이다.

경복궁은 조선 건국과 함께 세워진 첫 번째 궁궐로서 북한산의 품에 안긴 형국을 하고 있다. 궁궐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주변 네 개의 산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경복궁은 북쪽의 북한산이 주산(主山), 즉 현무가 되고 동쪽의 낙산과 서쪽의 인왕산이 각각 청룡과 백호가 되었다. 또 남쪽의 남산은 주작이 되었다. 흔히 말하는 '인왕산 호랑이'는 그 산에 호랑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왕산이 '좌청룡 우백호' 중 백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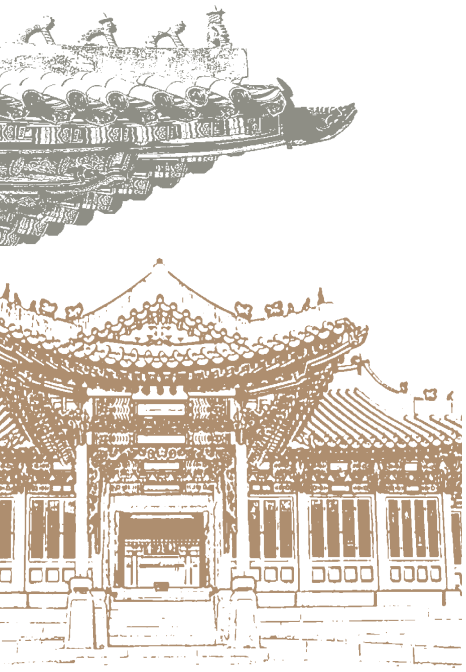
궁궐은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정사(政事)를 보는 정무 공간, 일상을 위한 생활 공간, 그리고 연회와 휴식을 위한 후원이 그것이다. 경복궁은 남북 방향의 축을 기준으로 정문인 광화문, 즉위식이나 문무백관 조회가 열리는 근정전, 왕의 집무실(편전)인 사정전, 왕과 왕비의 침전인 강녕전과 교태전, 연회장소인 경회루 등 수많은 전각들로 구성되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비롯하여 그 많은 건물명들을 지은 이가 바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정도전이다.

광화문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이어진 흥례문과 근정문을 통과하면 너른 마당 너머로 근정전이 나온다. 근정문의 문틀을 액자 삼아 드러나는 근정전의 위엄이 자못 인상적인데, 물론 건축가가 의도한 효과일 터다. 근정전 뒤편의 사정전 양쪽에 보조 편전 두 채(만춘전, 천추전)가 있는데, 얼핏 좌우대칭인 듯하면서도 측면 구성을 달리하는 식으로 비대칭을 슬며시 섞어놓았다. 방만하게 따로 놀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않은, 한민족 특유의 은근함이다.

정무 공간을 지나면 강녕전과 교태전을 중심으로 한 침전 구역이 시작된다. 교태전은 좌우의 보조 전각들과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앞마당은 최대한 'ㅁ'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당이 번잡하면 중전의 심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걸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왕세자의 거처인 동궁은 근정전 동쪽에 위치하는데, 이는 왕세자를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세자와 세자빈의 거처인 자선당은 문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근정전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반듯한 구성은 장차 왕권을 이을 세자에 대한 교육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니, 누가 기거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위치와 생김새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했던 게 바로 우리의 궁궐 건축이다.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남북축 없이 건물들이 자유로이 배치되어 있다. 매봉에서 흘러내려온 자연적 지형에 따라 건물들을 배치한 까닭이다. 그런가 하면 여인들을 위한 궁궐이었던 창경궁은 다른 궁궐들에 비해 은밀하고, 창덕궁의 개방적 자유로움에 비해 인위적 미로의 느낌이 물씬 풍겨난다. 엄격한 궁궐과 분방한 궁궐, 남성적 궁궐과 여성적 궁궐의 차이를 음미해 보는 것도 궁궐 답사의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다. S

에디터 김미경 글 박경수



辨

雪花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속부터 우리나는 촉촉한 윤기를 얻는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음의 기운이 부족해져, 피부의 윤기를 잃게 됩니다. 피부 속 부족한 기운을 채워 흐트러진 피부균형을 맞춰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귀한 원료들의 조화로 탄생한 자음단이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까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맞춰 건강한 피부에서 우리나는 촉촉한 윤기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겉으로만 빛나는 윤기를 넘어 피부 깊이 차오르는 윤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우리나는 촉촉한 윤기로, 피부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선명한 여름의 색, 赤

붉고 고운 빛에 매료된 여인의 마음도, 예를 중시하는 선비의 진지함도, 악귀를 물리치고 재앙을 막고자 할 때에도 옛 선조들은 적색을 썼다. 적색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고, 삶의 깊은 곳에서, 자연에서 적색을 즐기고 누렸다. 너무도 선명하기에 아름다우며, 강렬하기에 잊히기 힘든 오방색 중 적색을 뜨겁고 강렬한 여름 풍경 속에서 들여다보았다.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예를 담아 붉게 타오르니

의식주에 쓰이는 가재도구, 옷감을 비롯 공예, 조각, 건축, 시서화 등에 쓰인 다양한 무늬는 오방색의 적(赤)을 만나 예(禮)의 정직함과 강직함을 드러낸다. 적색이 담고 있는 태양, 불, 피의 상징적 의미는 곧 중심, 강렬함, 적극성을 드러내어 사대부의 학문적 깊이와 남성 사대부 사상을 잘 설명해 주는 요소로 설명된다.

Each component of the traditional pattern of Seomseomoksu conveys the courtesy and passion of Korea's ancestors. The various patterns used for the home goods, textile crafts, sculptures, architecture, poetry, and paintings meet the red color of the Five Colors to express the honesty and uprightness of courtesy. The red sun, fire, and blood symbolize the center, intensity, and activeness of the academic depth and ideology of the nobility.



산천초목, 붉게 물든 여름이 왔네

여름은 생성과 창조를 담는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성의 기운이 자연에 가득하고, 여인들은 강렬한 여름을 맞아 화사한 의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여름에 피는 해당화는 우리나라 각지에 자라나는 야생화로, 7월에 꽃이 만개하고, 8월경엔 붉은 열매를 맺는다. 붉고 푸른색 비단을 이용해 화사한 색으로 만든 당혜(唐鞋)는 여인들의 여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As the sweetbrier blooms and fades to show that summer has come to Mother Nature, the young lady is mesmerized by the view of nature in full bloom over the wall. Summer captures the energy of birth and creation. Nature is filled with the energy of birth to make flowers bloom and bear fruit, and women ornament themselves with bright outfits.





화
 의
 색
 은
 가
 락
 에
 밝
 은
 기
 락
 이
 더
 하
 나

오행 가운데 화(火)에 해당하는 적색은 벽사의 빛깔로 사귀(邪鬼)를 물리치거나 재앙을 불제(祓除)하는 일에 쓰였다. 왕이 기거하는 곳인 궁궐에 붉은색이 많이 쓰인 이유는 귀신이나 재앙으로부터 왕족을 보호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붉은 띠를 두른 사물놀이패와 적색 부채를 들고 줄을 타는 재주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흥을 대변하는 색이 곧 적색임을 알 수 있다.

Red, which represents Fire among the Five Elements, was the color of exorcism used to defeat demons or drive away disasters. It was often used for the palace where the king stayed because it was thought to protect the royal family from ghosts or disasters. Red was never missed out in joyous occasions.





가래바다
는
적색이
된다

선조들은 색(色)을 우리가 입고, 자고, 먹는 것은 물론 하늘, 땅, 동식물 등 모든 만물을 이루는 것이라 여겼다. 한국 전통의 색인 오방색은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땅과 하늘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이 화, 수, 목, 금, 토의 오행을 생성하였다는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한다. 오행은 오색이 따르고 방위가 따르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적색은 남(南)을 상징한다.

Korea's ancestors believed that color completes everything in the universe, including what we wear, where we sleep, what we eat, and even the sky, land, animals, and plants. The traditional Five Colors of Korea is based on the theorie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t states that Yin and Yang energy formed the sky and land and created the five elements of Fire, Water, Wood, Metal, and Earth. The Five Elements are followed by the Five Colors and the Four Directions, of which red symbolizes the south. Feng shui is also based on the theorie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the south represents good energy.



바다에서 美를 보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으리. 언젠가 잔잔한 파도가 되어 마음의 평안이 옴을 알기에. 인생을 닮은 여름 바닷가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The Sea
- Chang Heup Kim

There is a beautiful scene that showcases the mountains and the fields.
The water that leads to the sky is constantly flowing in and out.
Who should be asked about eternity?
The Universe is your origin.
Pursuing both honor and knowledge have become nothing in its presence;
For what must you talk about the joy and sorrow of life?
Even the portrayal of its peculiarity seems futile;
Just whistle and rest against the pine tree.

바다

- 김창흠(金昌翕)

산도 들도 멈춘 곳에 장관이 펼쳐지네.
하늘까지 이어진 물, 뱀었다가 삼킨다.
만고 세월의 많고 적음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너에게는 저 우주가 근원이라 해야 하리.
명예를 좇고, 지식을 탐하는 것조차 저 앞에선 사라지니,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말해 무엇하리.
그 기이함 묘사하는 것조차 헛된 노력과 같으니
휘파람 길게 불고 슬뿌리 베고 눕는다.

빛과 열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데이 크림인 소선편크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 차단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금강산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 금원김씨(鎭園金氏)

든 물 동쪽으로 다 흘러드니,
깊고 넓어 아득하고 끝이 없네.
이제야 알았다. 하늘과 땅이 커도,
내 가슴속에 담을 수 있음을.

각종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청윤수딩팩, 모공과 피지를 케어하며, 피부 진정 효과
와 항산화 효과에 우수한 청매실이 함유되어 있다.

Gazing at the East Sea atop Mt. Geumgang
- Kim of Geumwon

All the waters flow toward the east and
It is deep, broad, and endless.
I now understand that no matter how vast the
sky and land are,
I can still contain them in my heart



온천의 도시에서 물의 도시로 성장하다 비텔(Vittel)

물로 유명한 프랑스 작은 마을 비텔은 1890년 이후 보스그 지방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다. 완벽한 순도의 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텔(Vittel)은 자연이 준 그들의 환경을 지켜가는데 힘쓰고 있다. 프랑스 3대 생수 원천지이자, 세계적인 온천 도시,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프랑스 비텔을 통해 물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우리는 물과 물을 보호하는 땅을 위해 존재한다.” 비텔(Vittel)의 정원 설계자인 롤랑 모트(Roland Motte)의 설명이다. 비텔의 땅을 에텐의 동산처럼 꽃, 과일, 채소 및 곤충 등 그 어떤 화학적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적인 정원사 롤랑의 광기 어린 도전이었다. 그는 비텔이라는 도시에, 프랑스 보스그 산맥의 중심부에 정원도시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현재 비텔의 지하수는 도시를 중심으로 30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매력적인 무어 건축양식의 문양을 자랑하는 비텔의 온천 갤러리는 파리의 오페라뿐만 아니라 비텔의 온천장 및 카지노를 설계했던 샤를르 가르니에(Charles Garnier)가 건축하였다.

‘웅장하고 우아한 실루엣, 순수한 각선미, 빛나는 골드 모자이크 등 이것이야말로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작품이다’라는 광고 카피를 통해서도 예술 도시로서의 비텔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텔의 정원 안에는 매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이동이 가능한 정자와 키오스크가 있다. 공원에 웅장하게 서 있는 클럽메드 소유의 세 개의 아르데코 궁전은 자크-앙리 라르티그(Jacques-Henri Lartigue)가 찍은 사진 속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의 앵글로 노르만 양식 빌라들이 경마장과 수영장을 향하고 있으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천공원의 위대한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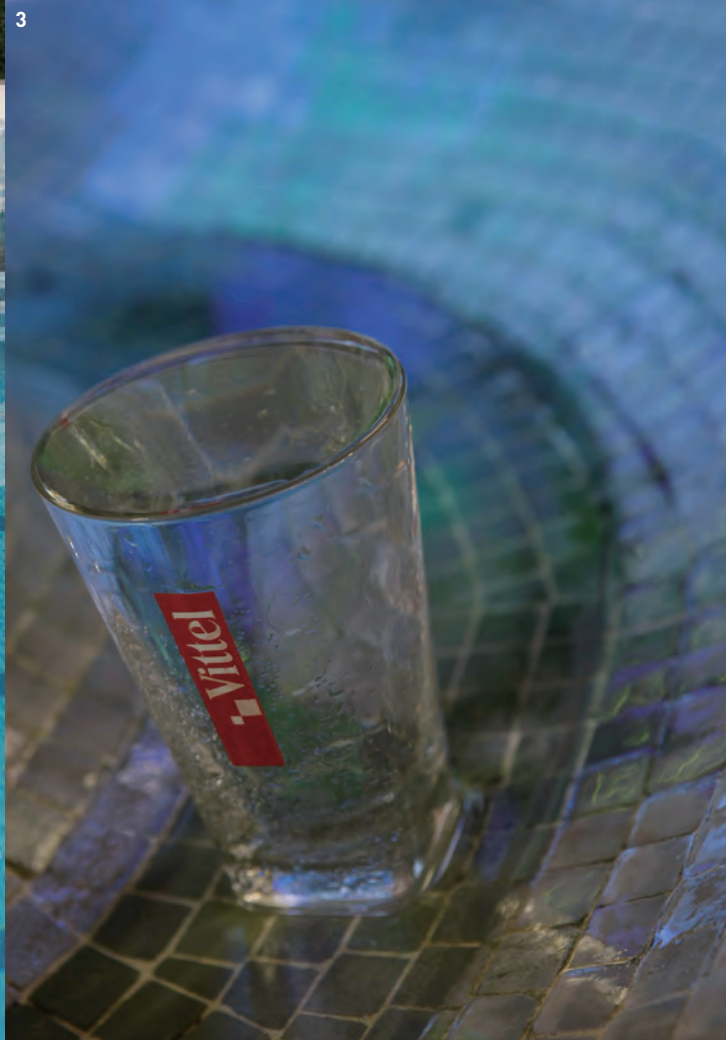
자연은 잠을 자지 않는다. 평화로움과 동시에 동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은 오히려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네슬레 워터스사의 자연환경 보호 분야 자회사인 아그리베르사는 지역의 환경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거의 1만 헥타르에 가까운 땅은 농약이나 질산염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 농업기술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광천수는 녹색거품으로 형성되

1 에콜드 낭시 건축가인 오귀스트 블루아센에 의해 설계된 물 궁전 2 도시를 상징하는 옛 궁전의 아르데코 모자이크 3 현대적 감각의 채색 유리로 빛나고 있는 분수대





2
3



1



어 있다. 공중 도로에 나 있는 잡초는 온천수를 이용해 없애고 있다. 온천공원 안 도로나 자전거 혹은 전기캐디로 이동이 가능한 골프장도 100% 유기농이다. 비텔은 씨를 다시 심는 것보다 별초를 통한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중시한다. 진딧물은 공원에 번식하고 있는 무당벌레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이와 같은 비텔의 아그리베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수자원 보호의 롤모델이 되었다.

건강한 물의 고장

“마시자, 없애버리자!” 1980년대 슬로건을 기억하는가? 비텔의 물은 3가지 탁월한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노제로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물의 질이 훌륭하고, 진정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잔물로 알려진 비텔의 찬물 속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외에 온천수 펠리시는 진통 치료에도 쓰이고 있다. 콩트렉스, 에파르와 비텔의 물 제조 공정은 비텔-콩트렉세빌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틀링 공장으로서, 매년 6억 병을 생산하고, 하루에 약 200만 병을 출고해낸다. 1968년부터는 푸른빛이 도는 재활용품 튜브 형태의 PVC를 제공하였고, 호텔에는 유리병만 취급하도록 했다. 한편 거대한 탱크에 보관된 물은 여러 단계의 지하수 층에서 퍼올리는데, 지하수 층이 깊을수록 여과 단계가 많아질수록 미네랄의 양도 적어진다. 이처럼 보틀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환경에 보다 적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기가 훨씬 가벼워졌을 것이다.

1930년부터는 제품을 기차로 운송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네슬레 워터스사는 에너지와 물 소비량, 포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20%씩 줄여갔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온천의 도시이자 물의 도시 비텔은 앞으로도 물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불가능한 일은 없어 보인다. S

에디터 남윤진 번역 박진환 글 아그네스 베누와(Agnes Benoit) 사진 장-마크 팔리스(Jean-Marc Palisse)

1, 2 에콜드 낭시 건축가인 페르낭 세자에 의해 설계된 수영장 내부와 클럽데드 소유의 수영장 외부. 3 비텔 온천 분수대 모자이크. 4 미네랄 워터라는 수자원을 대표하는 분수의 프랙탈 기하학. 5 하루에 200만 병에 물을 담는 비텔-콩트렉세빌 공장 모습.

Impressionism is a style of painting that uses visible brushstrokes.

Impressionism is a style of painting that uses visible brushstrokes and colors arranged in a particular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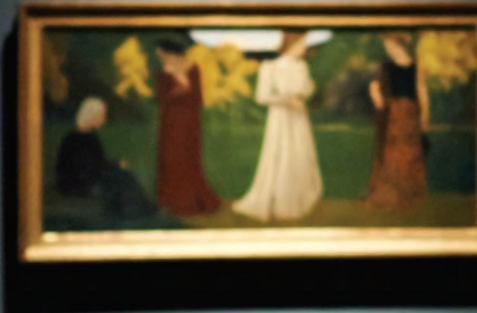
From Impressionism to New Impressionism, 1874



1874, J.M.W. Turner, Rain, Steam, and Great Railway Bridge, oil on canvas, 18.5 x 24.5 cm, Tate Gallery, London



1874, J.M.W. Turner, Rain, Steam, and Great Railway Bridge, oil on canvas, 18.5 x 24.5 cm, Tate Gallery, London



1874, J.M.W. Turner, Rain, Steam, and Great Railway Bridge, oil on canvas, 18.5 x 24.5 cm, Tate Gallery, London

인상주의를 다시 보다

세계적인 그림과 예술의 도시 파리를 만나다. 새로운 시대를 이끈 예술가들과 동시대 예술의 수도, 파리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당대 작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펼쳐진다.



1

1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어린 시절의 페르낭 알판》(조스 베르헤임 전 부인과 그의 아들 헨리). 2 19세기 말 파리지엥의 도시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 3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의 《검은 모피를 두른 여인》(La femme au boa noir, 1892). 4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화는 인상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이 된다. 5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주술사》(La Charmeuse de serpents, 1907).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을 통해 19세기 말 프랑스의 예술적 흐름과 시대적 변화를 조망하는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 오르세 미술관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전통미술을 전시하는 곳에서 새삼스럽게 인상주의 작품을 만나고 있다.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서양미술사 전공자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가 간다. 이번 전시는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몇 개의 작품 중에서 인상주의에서 태동하거나 혹은 그 반동으로부터 일어난 예술사의 새로운 움직임에 집중 조명하고자 하는 전시다. 미술사 책에 수록된 유명 작가들의 익숙한 작품과 함께 르네 라리크와 에밀 갈레르로 대표되는 아르누보 공예 작품, 19세기 말경 새롭게 정비되기 시작했던 도시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 데생들 및 조반니 볼디니와 같은 작가들이 바라본 당시 파리의 삶이 담긴 데생 작품들, 그리고 에펠탑 건축 현장을 담은 루이 에밀 뒤랑텔의 사진과 당대 활동했던 화가들의 아틀리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오르세 미술관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 나로서는 역시 모네, 드가, 세잔 그리고 루소의 그림이 제일 좋았다.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할까? 그러나 모네와 드가의 작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맑고 밝은 하늘 아래 양산을 든 여인과 바람에 흔들리는 잡풀과 꽃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한낮의 그 눈부신 정경. 혹은 강변에 정장을 한 남녀들이 피크닉을 나온 장면 또는 화사하게 차린 아가씨와 청년들이 카페에 몰려와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거나 보트 놀이를 하는 모습들이 그려진 것이 인상파라는 19세기 후반기 동안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회화의 한 유파에게 주어진 그림들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2



3



4



5



1



2



3

무엇보다도 인상주의의 특징은 '감각적으로 느낀 인상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묘사한 것으로 이루어진 회화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인상주의의 그림을 별다른 부담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다. 아마도 눈에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그림이기에 그러 하리라. 이 인상주의 작가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가장 유명한 작가가 바로 모네다. 사실 인상주의란 용어는 그가 그린 '해돋이-인상'이란 작품을 당시 언론과 일반인들이 비난조로 지칭한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1870년 보불전쟁을 피해 런던으로 피신한 모네는 마침 그곳에서 영국의 뛰어난 작가인 터너와 컨스터블들의 작품에 매료되어 깊은 감화를 받고 그의 작품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영국 여행이 모네의 그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난 후 그는 더욱 인상주의 기법을 탁월하게 정립해 나갔다.

그의 터치는 차츰 세분화되어 나중에는 시각적 색채 혼합의 원리에 따라 덧포개어진 작은 콤마 부호들과 비슷해졌고 점차 추상화되어갔다. 참신한 시각, 미묘한 분위기의 묘사, 강렬한 빛, 물 위에 어른거리는 햇빛과 반사광선의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인 묘사, 순수한 색채의 하모니가 바로 모네 그림이다.

“나는 자연을 쫓아가지만 그것을 붙잡지는 못하고 있다.”(모네)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베르니에 손수 자신의 아틀리에를 마련하고 정원에 연못을 판 후 그곳 풍경을 집요하게 화폭에 담은 그의 대표작이 바로 '수련' 연작이다. 황홀하고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빛과 색채의 향연이다. 이후 그는 1926년 12월 26일 지베르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작인 <양산을 쓴 여인>이 출품되었다.

부유한 은행가이자 그림에 깊은 조예를 지닌 아버지를 두었지만 자식이 화가가 되는 걸 끝까지 반대함에 따라 다니던 법대를 중퇴한 후 집을 나가 다락방 생활을 하며 그림에 열망을 키운 이가 바로 드가다. 그는 인상파에 속하면서도 엄격한 사실력과 냉철한 이론가이자 가장 비인상파적인 고전주의자로 꼽힌다. 드가는 철저히 현대생활을 그려내어 가장 순간적인 행동을 포착하고 이를 하나의 확고한 자세 속에 잘 나적이고 순간적인 시간, 현재의 삶을 불멸화해놓았다. 그의 오랜 지기인 시인 폴 발레리는 “순간적 인상을 심오한 탐구 속에 담으려 하고 직접 느낀 것을 오랜 기간의 의지적 반성 속에서 연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드가의 그림은 오랜 심사숙고와 그의 모든 능력과 기능을 동원한 것이다. 아울러 끈질기게 형태의 비밀, 형태 속에 숨어



4



5

1 꿈과 환상의 세계를 그린 상징주의적 기법으로 아침, 잠실, 저녁의 일상을 보여준 작품들. 2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femme à l'ombrelle tournée vers la gauche, 1886). 3 파리의 에펠탑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놓은 루이 에밀 뒤랑델의 사진. 4, 5 유리 공예의 가장 르네 라리크와 에밀 갈레르의 아르 누보 공예작품을 비롯 다양한 자기 작품도 전시되었다.

있는 신비스러운 기하학을 추적,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 나갔으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항구성과 영원한 리듬을 발견하려 했다. 그는 당시 휴대용 카메라와 스냅사진의 발전에 힘입어 중심에서 벗어난 구도를 사용하는 대담한 화면 배치방식을 즐겨 사용하면서 완벽한 구성을 추구하고 유럽 회화의 고전적 전통에서 대담하게 이탈해 그림이 유명한 주제나 존귀한 양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음을 가시화했다. 한편 삶을 가능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기에서 이외성을 발견하고자 한 이 부르주아 작가는 여느 인상파 화가들과는 다르게 하층 계급의 생활 정경 및 무용수, 경마장 풍경 등을 주로 그렸고, 이를 조각으로도 남겨놓았다. 드가는 뛰어난 조각가이기도 한데, 이번 전시에 발레하는 여인들을 표현한 드가의 조각 작품이 여러 점 선보인다.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 전시는 인상주의의 대표작가인 모네와 드가의 뛰어난 작품 몇 점만으로도 매력적인 전시가 되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한번 일별해 보시도록. S

에디터 남윤진 글 박영태(경희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02-325-1077~8)

우주의 질서를 담은 한국, 전통 나침반 '윤도' 5대가 있다

'윤도' 이렇게만 쓰면 당최 뜻을 알 수 없다. 한자로는 輪圖, 그래도 그 뜻을 가늠하기가 역시 쉽지 않다. 풀어쓰자면, 24방위를 원으로 그려넣은 풍수지남침(指南針), 즉 일종의 '나침반'이다. 지금이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물건이지만, 그 옛날 집터나 뗏자리를 살피던 지관에게는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군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천문과 여행 분야에서도 두루 쓰이던 요긴한 물품이었다.



“조선 최상의 명품이었던
낙산마을 윤도가 21세기에
생산될 수 있는 건 5대에
걸친 한 가문의 자기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남철 혹은 패철이라고도 불리던 이 귀한 윤도가 쓰이기 시작한 건 ‘풍수지남침’이 쓰이던 신라 후기부터라고 한다. 그러던 것이 풍수음양지리가 성행했던 고려 전기부터는 땅의 형세를 보던 풍수가나 지관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조선시대에는 풍수가라는 특정 직업군의 전용물에서 벗어나 여행자나 천문학자들의 휴대용 해시계의 정확한 자오선을 정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쓰임새가 넓어졌다고. 특히 유람을 즐기던 선비들에게는 요즘의 명품시계에 빗댄 사치품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윤도는 중심의 지남침을 둘러싸고 24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방위 명칭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음양·오행·팔괘·십간·십이지가 들어 있는데, 방위 명칭 자체는 팔괘·십간·십이지가 정밀하게 조합돼 있다. 접할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윤도를 한 번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지관에게 뒷자리를 자문하지 않게 된 요즘, 주 소비자가 사라지자 덩달아 윤도도 그 아름다움의 빛을 잃었다.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는 세상, 한국의 전통 윤도는 방위를 찾는 본디 기능이 무색하게 스스로의 갈 길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수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공급도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전통 윤도 제작기술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고사 위기에서 구한 김종대(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장인의 가문에 진 빛이 많다. 대체 이 가문은 어떤 인연으로 무려 5대째 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 긴 인연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전북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洛山) 마을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마을에서 윤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400여 년 가깝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흥덕현(興德縣)에 속했던 이곳에서 만든 윤도는 ‘흥덕 패철’이라 불리며, 최상품으로 여겨졌다. 북한과 전북 무주에서도 윤도를 생산했지만, 고창을 제외하곤 그 명맥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다.

윤도의 유일한 전승지이자 성지나 다름없는 낙산마을의 전통 기술은 한 씨, 전 씨, 박 씨 등에게 전수돼 오다가 김 씨 가문으로 길을 틀어 지금에 이른다. 김종대 장인의 집안이 윤도 일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조부인 김권삼 선생이 마을에서 윤도 일을 하고 있던 ‘한운장’이라고 알려진 한 씨에게서 기술을 물려받으면서부터다. 김권삼 선생은 네 아들 중 손재주가 있던 둘째 아들 김정의 선생에게 윤도 일을 물려주었고, 손재주가 좋고 한학에 밝았던 김정의 선생은 20세가 넘어 일을 시작해, 65세로 작고할 때까지 일반 평철 이외에도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기법이 필요한 선추와 면경철 등을 제작하였다. 그런 김정의 선생의 작업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막냇동생의 아들인 김종대 장인이다. 아들 대신 손재주 좋은 조카에게 대를 물린 것이다.

“백부께서 작고하실 적에 돈벌이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업이니, 부디 버리지 말고 이어 달라고 하셨죠.” 중학교도 졸업하기 힘들던 시절, 고등학교까지 마친 김종대 장인은 당시 선망의 직장인 농협에 근무하며 험한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윤도를 만드는 도구를 손수 건네주며 신신당부하신 백부의 간절함을 저버릴 수 없었다. 1934년 생으로 올해 82세가 된 김종대 장인이 돈벌이도 안 되고, 고되지만 한 윤도의 길로 접어든 게 그의 나이 31세가 되던 1963년의 일이다.

김종대 장인은 평생 낙산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 외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윤도는 반드시 낙산마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 때문에 15년간 다니던 농협도 그만두고 윤도에만 매달렸다. 조부와 백부의 뒤를 이어 묵묵히 정교한 손끝 하나로 ‘전통 나침반’의 명인이 된 김종대 장인은 그 고된

1 기업을 이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백부로부터 물려받은 윤도를 만드는 도구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건 단지 연장만이 아니라 전통공예의 맥을 이을 흔적이였다. 2 우주만물과 땅의 이치를 하나의 원 안에 담은 한국의 전통 윤도. 윤도 제작을 위해선 <주역> 등의 공부도 뒤따라야 했다. 3 쌀알만큼이나 작은 글자를 새기기 위해 흠 없는 대추나무를 재료로 삼는다. 수백 년 이상 된 목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10년 가까이 건조하는 과정 또한 지난하다. 4 성한 곳 하나 없는 장인의 손. 얼마나 많은 날카로운 연정에 살점을 내주어야 했을까?





길에 스스로 접어들었다. 단지 가업을 잇는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이자 4대째 가업을 잇는 김희수 씨는 어떤 심정으로 윤도의 길에 들어선 것일까?

“저 역시 모 건설회사에서 16년 동안 일하며 고향과 가업을 떠나 있었지만, 아버님도 연로하셨고 마땅히 이 일을 하겠다는 뜻을 가진 분도 나타나지 않아, 7년 전 서울을 떠나 환향하게 된 겁니다.”

땀줄 뭍은 곳으로 돌아왔으니 한편으로 즐겁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버지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없었다. 그 역시 농사를 겸하면서 윤도의 길을 걷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만만치 않은 전수관의 관리 비용 또한 온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장인 부자의 몫이라고 한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도 윤도와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들의 윤도는 플라스틱이나 값싼 나무에 인쇄를 하거나 그림을 그린 뒤 칠을 하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반면에 우리의 전통 윤도는 그것들과 차원과 가치를 달리한다. 우선 재료부터가 다르다. 윤도의 재료로는 대추나무나 회양목, 은행나무를 주로 쓰는데, 이 나무들은 목질이 곱고 단단하여 정교한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중대 장인의 가문은 수백 년 묵은 대추나무를 쓴다. 재질이 단단하고 말려놓으면 잘 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비단결 같이 윤기가 나면서 오래 갖고 다닐수록 색이 더욱 빨개지고 고와지기 때문이다. 최상의 재료에 모든 작업이 고도로 숙련된 수작업으로 이뤄지니, 공장에서 찍어낸 그것들과는 비교 자체를 거부할 만하다. ‘제품’과 ‘작품’의 차이란 이런 것이리라.

비단 재료만 특별한 게 아니다. 윤도를 만드는 솜씨는 가히 도의 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00자 가까이 들어가는 한자를 밀 글씨를 쓰지도 않고, 예리한 칼 한 자루에 혼을 담아 일필휘지로 음각을 하는 과정은 ‘신기’에 가까운 솜씨가 아니면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 단 한 자가 들어갈 공간만 밀려도 그간의 수고는 허사가 돼,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한 달에 고작 한 개 정도가 장인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는다.

“술직히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물량을 댈 수 없어, 굳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알음알음 찾아오시는 분들만 상대하는 편이죠.”

김희수 씨의 전언처럼,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통공예 분야가 있는가 하면, 윤도처럼 소량 생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따라서 같은 전통공예라고 해도 지원책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윤도의 제작과정은 마치 시계와 같아 정밀도가 생명이다. 나무를 잘라 모양을 만들고 다듬어 놓은 원통형 나무에 중심을 잡는다. 이 중심은 기준점이자, 나중에 자침을 받쳐줄 받침대를 세울 곳이기도 하다. 이후 층수를 정하여 그린다. 층수를 정할 때 각 동심원 사이의 간격은 각자(刻字)할 글자수를 고려해, 가장 안쪽 자침이 들어가는 원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한다. 분금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분금은 윤도의 생명이어서 윤도 제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분금 작업이 끝나면 글자를 새기는 각자를 하는데, 글자를 새기는 작업은 또 얼마나 까다롭고 지루한 일일까!

낙산마을은 그렇게 완성된 윤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실험하는 데 최적화된 장소다. 마을의 상징인 거북바위(고인돌)의 등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동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낙산마을이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윤도의 고장이 된 것이다. 우주의 질서를 새겨놓은 나침반 ‘윤도’가 5대째 대물림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사방을 가리키고 있음은 우리에게 큰 행운에 속하는 일이다. S

에디터 남윤진 글 최태원 사진 박재형 캘리그래피 이규복

1 천문과 지리에 관한 동양사상이 집적된 윤도는 초정밀 시계만큼이나 정밀도를 요하는 물건이다. 2 밀그림 없이 칼을 들어 단숨에 선을 그리고 분금을 한 뒤, 글자를 새기는 기술은 가히 도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담벼를 임무를 낼 수 없는 영역이다. 3 아버지의 대를 이은 이들은 언젠가 대학생인 자신의 아들에게 선조들의 칼을 물려주고자 한다. 물론 그 이들 역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윤도의 원 안에 혼을 담을 것이다. 4 한국의 전통 윤도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도와 예술적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찾
이
食
樂
이
되
다
찾
았
튀
김
과
녹
차
원
소
병



차 한잔에 더위를 잊으리니

몸의 열을 식히고 갈증을 잊기 위해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고, 녹차물에 국수를 말아 입맛을 되살린다. 여름 한철, 시원하고 맛깔스러운 녹차로 더위를 잊으니, 삼복 더위가 어찌 무서우랴.

푸드 아트 이종국 어시스턴트 최은미, 윤현석, 박진우 사진 이종근 에디터 김미경

말차
차로
어름을
나다



차국수와 차떡
담백한 차의 향을 담다



말차

말차(抹茶)는 시루에서 찌낸 찻잎을 그늘에서 말린 후 잎맥을 제거하고 분말 형태로 만들어 이를 물에 타 음용하는 차를 뜻한다.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려 마시는 잎차보다 차 속 유의한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운 말차는 찻가루를 찻순가락으로 살짝 떠서 다완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다선(茶筌)으로 거품이 잘 일어나게 한 후 마신다. 거품이 마치 생크림처럼 잘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Malcha is tea made by drying tea leaves after steaming them, removing the veins and finely grinding the remainder, and then dissolving the powder in water. Unlike tea leaves brewed in hot water, you can ingest all the helpful substances in Malcha. To make Malcha with a beautiful dark green color, put a spoonful of tea powder in a cup and add boiled water. Stir until foam is formed. The foam should be as rich as whipped cream.

찻잎 튀김과 녹차 원소빙

선조들은 갈증 해소를 위해 차를 자주 마셨다. 그리고 남은 찻잎은 버리지 않고 물기를 짜내어 요리 재료로 이용했다. 버섯, 새싹 채소, 파프리카, 부추를 잘게 다져 찻잎을 튀김 옷으로 활용한 찻잎 튀김과 꿀을 탄 녹차에 찻잎과 찹쌀가루, 잣을 넣어 만든 경단을 함께 먹는 녹차원소빙(綠茶元宵餅)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여름 별미 요리다.

The Korean ancestors drank tea to quench their thirst in summer. They saved the tea leaves after brewing them and dried them for use in cooking. Some of the smart summer specials made with the used and dried tea leaves are deep-fried tea leaves, which include finely chopped mushrooms, sprouts, paprika, and leeks deep-fried with tea leaf batter, and Green Tea Rice Cake Punch, which is honeyed green tea drunk with rice cakes made with sweet rice flour and pine nuts.

차국수와 차떡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지닌 시원한 녹차물에 말아 먹는 국수에 야생국화를 고명으로 얹어내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살려준다. 또한 찻잎과 쌀가루를 이용해 만든 차떡은 부드럽고 찰진 떡과 향이 조화로운 궁합을 이룬다.

Known for its bitter taste and subtle fragrance, green tea can be combined with noodles and topped with wild chrysanthemums and other toppings. The chewy noodles blend with the harmonious fragrance of green tea and chrysanthemums, stimulating your appetite when you're tired due to the hot weather. The tea cakes made with tea leaves and rice flour are tender and chewy, with the fragrance of tea leaves.

설화수를 말하다

물속에 깃든 아름다움

물속에 아름다움의 비밀이 담겼다. 피부 수분환경을 개선해 깊고 촉촉한 탄력 수분을 피부에 공급해 주는 설화수 수올 라인이 물과 어우러졌다.

수올미스트

Hydro-aid Moisturizing Lifting Mist

농축된 한방 성분이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부를 깊고 충실하게 적셔주는 한방 수분 미스트.

수올선크림

Hydro-aid Moisturizing Lifting UV Protection Cream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속 수분증발을 방지하여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주며 촉촉한 감촉의 수분 감촉 텍스처가 매력적인 수분 선크림.

숫자를 패턴처럼 디자인한 연적은 이세용 도예.





수물 크림
Hydro-aid Moisturizing Lifting Cream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차전자 추출물이 함유되어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한방 수물크림.

수물 에센스
Hydro-aid Moisturizing Lifting Serum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리면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 피부의 수분 재생력을 키워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한방 수분 에센스.

사각 프레임의 미니멀한 디자인의 연적은 우일요.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우일요(02-763-2562), 이세용 도예(070-7750-2401)



그 시절, 여름

어느 시인은 아름다운 여름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라 노래했지만 열대야는 반갑지 않은 손님임이 틀림없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름 풍류를 즐기며 무더위를 견뎠을까. 무더운 여름, 옛 그림을 통해 한가롭고 시원한 여름을 느껴보자.

폭염이 등쪽에 꽃히면,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입 안은 목마름으로
탄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벗어났을까. 아무래도
고맙기는 물이다.
산지사방에 널린 게 냇가,
강가, 갯가 아닌가. 여기
'덤벙' 저기 '퐁당' 하는 사이
모진 여름이 내뺨다.

흥겨운 여름나기

옛날 시골에서 여름만큼 바쁜 철이 없었다. 눈 뜨기가 무서운 농사꾼은 김매고 거름 주고 물 대느라 해거름이 되도록 더위와 씨름한다. 농사일을 해 본 사람은 안다. 폭염이 등쪽에 꽃히면,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입 안은 목마름으로 탄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벗어났을까. 아무래도 고맙기는 물이다. 산지사방에 널린 게 냇가, 강가, 갯가 아닌가. 여기 '덤벙' 저기 '퐁당' 하는 사이 모진 여름이 내뺨다. 천렵도 썩 좋은 피서법이다. 복날 계곡에 나가 그물이나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 놀이가 천렵이다. 잡은 고기로 어죽을 끓이고 매운탕을 만들면 이열치열이 따로 없다. 조선 말기의 화원인 유숙의 작품 '천렵'을 보라. 물놀이의 시끌벅적한 흥취가 물방울 튀듯이 흥겹다. 버드나무 아래, 갓 쓴 구경꾼들이 빙 둘러섰다. 물로 뛰어들고픈 마음은 그들도 굴뚝같다. 옷통을 벗어젖힌 사내들은 서로 일감을 나누었다. 손에 손, 그물을 잡은 사람들 위로, 한 명은 퐁당퐁당 고기 물이를 하고 한 명은 바닥을 뒤지며 다가온다. 샷샷 차림과 맨상투 바람에 고개 숙인 두 남정네는 쭉기와 통발에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궁금해 못 견뎈다. 맨 아래쪽 사내가 가관이다. 씨알 굵은 놈이 금방 맨손에 걸려든 모양이다. 놀라서 저도 모르게 흥스런 볼기짜를 번쩍 들었다. 에어컨 팡팡 튼다고 도시의 살풍경이 쉽사리 가시겠는가. 그 옛날 물가에서 판을 벌인 '참살이' 여름나기는 그림으로만 봐도 정겹다.

솔바람 솔솔 부는 소나무의 고마움

겸재 정선이 그린 '송음납량'은 또 어떤가. '소나무 그늘에서 시원함을 맞는다'는 제목이 잘 어울린다. 한 노인이 계곡물 쿨쿨한 산중을 찾았다. 소나무 아랫동아리에 첩퍼덕 주저앉아 옷통을 벗어젖히고 부채질한다. 흐르는 물에 무릎까지 담그고 나온 뒤라 맨발이다. 더위를 타고 오른 물방울이 나뭇가지에 안개를 드리워 솔숲이 너끈히 시원해졌다. 노인은 신선이 따로 없는 표정이다. 쓸쓸한 솔바람을 독차지했다. 처신 깨끗한 선비들은 피서도 눈치를 봤다. 당나라 백거이는 방 안에서 홀로 좌정하며 더위 짜증을 식혔다. 더위나기를 자기수행처럼 여긴 셈이다. 신발 던지고 민머리 드러낸 저



< 천렵 >

유숙, 19세기. 종이에 수묵채색.
55.5×32.5cm, 개인 소장



< 송음납량 >

정선, 1739년, 종이에 수묵담채, 128×57cm, 개인 소장



< 물 구경 >

이한철, 19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33.2×26.8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속의 노인은 그러나 눈치 안 보고 즐긴다. 요란스럽지 않으면 됐지, 더운데 무슨 양반 따지는 나는 심산이다. 이태백의 시도 마침 거든다. '망건 풀어 석벽에 걸어둔 채 / 이마 드러내고 솔바람을 쏘이네.'

마음을 씻는 관수세심(觀水洗心)

'물 구경'은 이보다 더 점잖을 수 없는 피서다. 동자를 거느린 두 선비가 너럭바위에서 계곡을 내려 다본다. 가운데 바위 사이로 두 갈래 물길이 터졌는데, 물살은 물거품이 일 만큼 세차다. 멋들어진 경치는 아니지만 볼수록 눈이 시원해지는 그림이다. 그린 이는 고종의 어진 제작에 참여했던 화가 이한철이다. 옛 선비들의 피서는 웅숭깊다. 옷통 벗어젖힌 채 맨살로 물에 뛰어들면 채신머리없다 해서 발만 물에 담그는 탁족을 즐겼다. 그보다 담담한 쪽이 바로 '물 바라보기'다. 물 보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묻지 마라. 누구는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을 씻었고, 누구는 흐르는 물에 자신의 반생을 비춰보았다. 인류 최초의 거울 또한 물이 아니던가.

공자는 물을 보고 깨달았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아서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노자는 말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주자는 읊었다. "땅의 모양은 동쪽 서쪽이 있지만, 흐르는 물은 이쪽저쪽이 없도다." 이쯤 되면 더위를 쫓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따르는 게 물이다. 이한철의 작품 '물 구경'은 물소리가 귓가에 번질 듯하다. 처마 끝의 빗소리는 번뇌를 끊어주고, 산자락의 물굽이는 속기를 씻어준다고 했다. 심지어 세상 시비에 귀 달게 해주는 것도 물소리다. 오죽하면 최치원이 '옳다 그르다 따지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가두어 버렸네'라고 읊었을까. 물이 있어 즐겁고, 물을 봐서 새삼스레 깨닫는 여름이다. S

에디터 남윤진 글 손철주(미술평론가)



건조한 여름 피부, 오아시스를 만나다

쾌적한 분위기와 검증된 제품으로 피부의 윤기를 살려 피부는 물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지상낙원의 장소로 안내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태양이 도시 전체를 달구는 여름이 다가왔다. 더운 날씨 탓에 모공은 넓어지고, 노폐물은 쌓여 피부 고민은 더해만 간다. 특히 강렬한 자외선으로 인해 어느 계절보다 수분을 쉽게 빼앗기는 여름.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이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철 피부관리를 위해 설화수 스파는 수올라인과 백자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피부 본연의 윤기를 살려 고운 피부결을 회복시켜주는 페이스&보디 프로그램이다.

먼저, 페이스 케어는 예민한 피부 진정관리 등을 위해 수올라인과 백토 마스크, 그리고 시원하게 준비된 페이스 백자툴로 가볍게 트리트먼트해 준다. 피부를 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맑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보디 케어는 원하는 설화유 트리트먼트를 골라 차갑게 준비해놓은 보디 백자툴을 이용해 등과 어깨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탄력은 높여준다.

페이스&보디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도구인 백자는 한국의 미를 대표하며 강력한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백자 고유의 단아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백자툴을 이용하여 정화기능을 높여주는 페이스&보디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피부를 관리해 보자. S

에디터 남윤진 사진 이은숙 도음 주신곳 설화수 스파(롯데호텔 서울점 02-318-6121)



'수올 라인'은 여름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준다.

Summer is here again to heat up the entire city with the scorching sun. The hot weather will cause enlarged pores, accumulated impurities, and exacerbated skin condition. The intense UV rays will dehydrate your skin; therefore, you will need proper care to keep your skin resilient and smooth throughout the summer.

Sulwhasoo SPA recommends the Hydroaid Line, as well as the white porcelain facial tool, for women who are looking for an effective summer skin care program. This program restores the natural radiance of the skin for that healthy and youthful glow.

First, the facial care utilizes the Hydroaid Line, white clay mask, and cold white porcelain facial tool to soothe skin. It also purifies and clears up the skin. Meanwhile, the body care utilizes the Sulwha Oil Treatment, based on the customer's choice, and the cold white porcelain tool for the relief of both back and shoulder muscle stiffness.

White porcelain, a traditional tool used for the face and body program, is part of the signature beauty regimen of Korean women. In addition, it has a powerful purification capacity to absorb impurities and odors. Take a good care of your skin this summer with the facial and body program that uses the elegantly and smoothly curved white porcelain tool for the purification of your skin.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선조들이 전해온 여름 나기 비법

삼복더위에도 끄떡없던 우리 선조들은 건강과 피부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건강을 잃기 쉬운 여름,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자.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옛 선조들의 건강관리법과 피부를 지키는 미용법을 알 수 있다. 오래전부터 선조들은 천연 재료로 몸을 지키고 관리했으며, 이는 단군신화에도 등장한다. 쭈과 마늘을 먹으며 지낸 곰이 여인으로 환생한 대목은 쭈과 마늘이 희고 고운 피부를 만드는 미백제로 사용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녹두·팥·콩 등을 갈아 만든 비누로 세안을 했고, 목욕물에 인삼·마늘·창포·복숭아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효과를 높였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미안수(美顔水)'도 옛 여인들이 즐겨 쓰던 천연 화장품이다. 스킨과 유사한 미안수는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하는 액체로, 수세미·토마토·수박·당귀·창포 등 다양한 식물을 이용해 여성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미안수는 수렴작용을 하므로 피부가 수축되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 여름철에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기온이 높아서 조금만 활동해도 땀이 많이 나는 여름, 여름철에 흘리는 땀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과 다르다. 그래서 여름이면 자꾸만 냉한 음식을 찾게 된다. 그러다 보니 쉽게 배탈이 나고, 저항력이 떨어져 장염이나 위염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날이 더울수록 따뜻한 음식을 챙겨먹는 것이 배탈을 예방하는 비결이며, 인삼차에 꿀을 넣어 자주 마시면 기력회복에도 좋고 배탈 또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오미자는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효능이 있어서 땀 배출이 많은 여름에 기운이 쇠약해져 있을 때 기운을 차리게 해 준다.

〈동의보감〉에 '오미자는 성질은 따뜻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주독을 풀어주고 정력을 보강해 준다'고 적혀 있다. 또 대추의 경우 '대추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쉽게 늙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며, 독성을 중화하는 성질이 있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팥은

'여름 더위를 막고 탈없이 보내게 해 준다'는 설이 있다. 여름 삼복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팔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어 복죽(伏粥)이라고도 부른다.

〈동의보감〉에는 '소금 끓인 물은 여름철 땀으로 인해 얼굴에 생긴 각종 부스럼을 치료하는 데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루에 다섯 번 소금물을 숨에 적셔 문지르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니 여름철 트러블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면 소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여름 피서는 〈동의보감〉에서 찾은 옛 선조들이 전해주는 비법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피부의 최대 적인 햇빛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는 계절, 옛 선조들의 지혜를 되살려 건강과 피부 모두 지켜보자. S

에디터 남윤진 사진 문성진 도움 받은 곳 광주요(02-3442-2054)



| 영화 |

마지막일지도 모를 오늘의 인사 〈천 번의 굿나잇〉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중군기자의 슬픔이 가득한 스토리, 줄리엣 비노쉬가 열연하는 깊은 울림의 〈천 번의 굿나잇〉이 기대된다.

에디터 남윤진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세계적인 명배우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천 번의 굿나잇〉이 오는 7월 3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줄리엣 비노쉬의 열연과 뛰어난 작품성으로 벌써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천 번의 굿나잇〉은 세계 최고의 중군기자 레베카가 아내, 엄마로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겪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주인공 레베카가 목숨을 걸고 전향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는 중군기자라는 흥미로운 설정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제37회 몬트리올 월드 필름 페스티벌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 번의 굿나잇〉은 에릭 포페 감독이 80년대 중군기자로서 자신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연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엄마, 아내 그리고 세계 최고의 중군기자라는 카피와 함께 엄마로서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줄리엣 비노쉬의 모습과 중군기자로서 슬픔, 간절함 등 복합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 과연 그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천 번의 굿나잇〉의 ‘레베카’역으로 분한 줄리엣 비노쉬는 〈사랑을 카피하다〉(2010)를 통해 제63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블루〉(1993)로 베니스 영화제, 〈잉글리시 페이션트〉(1997)로 세계 3대 영화제를 모두 석권,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여배우로 등극했다.

감독 에릭 포페 **출연 배우** 줄리엣 비노쉬, 니콜라이 코스터 왈도

프란시스 하



무용수가 되고 싶은 27살 뉴욕커, 프란시스의 삶을 다룬 영화다. 자기주도적인 삶을 바랐던 프란시스가 그것을 결국 실현해내는 데에서 전해지는 목직한 감동. 모든 청춘들에게 공감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70~80년대의 흥겨운 로큰롤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감독** 노아 봄바흐 **출연 배우** 그레타 거윅, 미키 심너, 그레이스 겸머 **개봉일** 7월 17일

군도: 민란의 시대



하정우, 강동원의 출연 배우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는 〈군도: 민란의 시대〉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자행했던 만행들을 의적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통쾌하게 복수하는 카타르시스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하정우의 첫 사극 출연작으로 그의 흥행 공식이 사극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감독** 윤종빈 **출연 배우** 하정우, 강동원 **개봉일** 7월 23일

더 시그널



SF 액션 스릴러 〈더 시그널〉은 선댄스 영화제에 상영되었던 기대작품이다. 천재 해커 노메드와 교신에 성공한 닉과 헤일리, 요나가 그의 신호를 따라가다 겪게 되는 영화다. '의문의 신호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세계가 무너진다'라는 카피 문구부터 흥미진진하다. **감독** 윌리엄 유뱅크 **출연 배우** 브렌트 스웨이츠, 로렌스 피시번 **개봉일** 7월 3일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



트랜스포머 시리즈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가 드디어 개봉한다.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결전. 그 이후, 살아남은 인류는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힘쓴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위기, 전 세계를 파괴로 뒤덮을 거대한 전투가 시작된다! **감독** 마이클 베이 **출연 배우** 마크 월버그, 니콜라 펠츠 **개봉일** 6월 26일

| 콘서트 |

알프스의 백설을 닮은 청정무구의 소리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23년 만에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한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봉을 잡고, 클라라 주미강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해 더욱 기대가 된다.



7월 1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내한해 폭풍 인기를 얻었던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양대 오케스트라다. 1918년 창단 이래 앙세르메, 야노프스키, 네메 예르비를 거치면서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입지를 확고히 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투어는 유러피안 전통 오케스트라 연주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프랑스어권 지역에 기반을 둔 이 오케스트라는 프랑스 전통과 색채를 자랑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장기인 프랑스와 러시아의 곡을 연주한다. 다만 네메 예르비가 아닌 일본의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를 맡아 악단 초기의 히트작인 오네거 관현악곡 231과 국내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고전,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드'를 연주한다. 2009년 브장송 콩쿠르 우승자인 가즈키 야마다의 같은 해 11월 마셜 플라송을 대신해 파리 오케스트라에 데뷔했다.

내한 공연 협연자로는 2010년 세계 최상의 경연,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전설의 악단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게 하는 공연이다.

일시 7월 15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24만원, S석 18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어쿠스틱 알케미 내한 공연



영국의 스무드 재즈 밴드 어쿠스틱 알케미가 내한 공연을 한다. 1987년 데뷔한 밴드는 록, 레게, 포크, 플라멩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어쿠스틱 재즈 사운드에 녹여내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듣기 편안하면서도 탄탄한 음악적 완성도로 또 다른 재즈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일시** 8월 23일 **장소** 유니클로 약스홀 **문의** 02-552-2505 **관람료** R석 12만 1천원, S석 9만 9천원, 스탠딩석 6만 6천원

니콜라 베네데티 내한 공연



차세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 베네데티. 2013년 영국 팝 차트 30위 권에 진입한 전례없는 아티스트로 실력, 미모, 따뜻한 마음, 3박자를 고루 갖춘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날 수 있다. **일시** 9월 2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2106-2021 **관람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아르츠 콘서트 이탈리아편 시즌2 - 로마 워드 러브



아르츠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해설로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콘서트다. 윤운중의 가이드를 통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비밀스럽게 오픈하는 이탈리아의 숨겨진 휴양지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시** 7월 19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2658-3546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플라잉 심포니: 키즈 콘서트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각적 환희를 선사하며, 오케스트라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키즈 콘서트는 아이들에게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일시** 8월 6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17-7734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1만5천원

걸음마다 꽃피는 삶 속으로의 초대 〈꽃피는 걸음—박노해 에티오피아 사진전〉

〈다른 길〉 전시 개막 후 18일 만에 관람객 수 2만 명을 돌파해 화제가 된 박노해 시인이 후속 사진 전시 〈꽃피는 걸음〉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인 박노해가 에티오피아에서 카메라에 담은 사진 22점을 선보인다. 박노해는 출소 이후 오래된 만년필과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 곳곳을 걸으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 왔다.

이번 전시 〈꽃피는 걸음〉에서는 기아와 분쟁으로만 기억되는 에티오피아 속에 드러나지 않은 장엄한 역사와 문화를 담아냈다. 박노해가 〈꽃피는 걸음〉을 통해 그려낸 에티오피아는 청나일 강이 발원하는 바다처럼 드넓은 타나호수를 품고 있다.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로마, 한나라, 페르시아와 함께 4대 제국으로 손꼽힌 '악숨 제국의 후예들'이다. 아울러, 〈꽃피는 걸음〉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거의 받지 않고 저항해온 아프리카의 자긍심인 에티오피아를 그렸다.

박노해는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난 '아프리카의 꽃' 에티오피아의 모습을 실감나게 담았다. 식량 원조에 기대지 않고 힘차게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 자기 몸집보다 큰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아이들 등 비쁜 일상을 지우고 삶의 근원과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 고요하고도 숙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미지들이다. 이외에도 850년경 에티오피아의 염소 치는 목동이 커피 열매를 최초로 발견했던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의 삶과 역사, 자연도 이번 사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시 7월 23일까지 장소 라 카페 갤러리 문의 02-379-1975 관람료 무료

에드바르트 몽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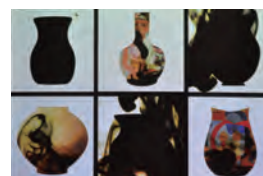
근대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이자 걸작 '절규'로 잘 알려진 에드바르트 몽크의 주요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인간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자신의 불안을 예술로 치유하고 걸작으로 표현해낸 몽크의 작품을 만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10월 12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기림미술관 문의 02-580-1300 관람료 미정

트리아카: 소리, 빛, 시간—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공학과 예술을 융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 트리오의 전시로 '우리가 알던 개념,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명제를 매우 과학적,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과학의 언어로 표현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일시 10월 12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관람료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백자에찬 - 미술, 백자를 품다



우리 미술 속에 나타난 조선 백자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전시다.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동시대 미술 작품,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현대 도예 작품들을 통해 백자의 아름다운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일시 8월 31일까지 장소 서울미술관 문의 02-395-0100 관람료 9천원

에스퍼 유스트: 욕망의 풍경



에스퍼 유스트는 최근 차세대 비디오키예트로 주목받고 사람 중 하나다. 상업영화에 필적하는 고품질의 영상과 사운드, 밀도 있는 편집을 바탕으로 총 15점의 작품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어 에스퍼 유스트의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일시 8월 3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문의 02-3701-9500 관람료 4천원

삶과 인간의 본질을 다룬 소설 〈Me Before You〉

그가 이별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사랑에 빠졌다. 맞닿을 것 하나 없는 다른 둘이 만나 하나의 꿈을 꾸다.



영국의 작은 시골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카페에서 6년째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여주인공 루이지는 어느 날 갑자기 카페 문을 닫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백수가 된다. 그러던 그녀에게 '사치마비 환자의 6개월 임시 간병인'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녀는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시급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간병인의 삶을 시작한다.

남자 주인공인 윌은 런던에서 잘나가는 투자회사의 젊은 사장,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못할 것도 없는 활발하고 건방지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교통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그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살기도를 한다. 고통과 절망밖에 없던 그에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게 만든 사람이 생긴다.

꿈 같은 삶을 산 남자와 꿈을 선물받은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만하리 만큼 잘났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치마비 환자가 된 젊은 사업가 윌 트레이너, 과묵하리 만큼 독특한 패션감각을 지닌 엉뚱하고 순진한 여자 루이지 클라크,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로 만난 두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삶과 인간의 본질,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로맨스 소설은 대부분 예측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Me Before You〉는 반전이 있어 평범한 로맨스 소설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훌쩍 뛰어넘어 묵직한 감동과 끝없는 울림을 이끌어낸다. 곧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다.

지은이 조조 모예스 출판사 살림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 '건강한 까칠함'. 이 책은 나와 상대방의 본심을 거울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방법과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치유법을 소개한다. 또한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관계의 법칙,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지은이 양창순 출판사 센추리원

여덟 단어



저자이자 광고인 박용현이 말하는 인생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여덟 단어〉.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정답을 찾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 인생은 몇 번의 강요와 몇 권의 책으로 바뀔 만큼 시시하지 않으며, 스스로 깨닫고 점차 자신의 방식대로 수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지은이 박용현 출판사 북하우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저자 칼 필레머는 '지금껏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와 조언들을 발굴해냈다. 그가 만난 현자들의 삶은 모두 합쳐 8만 년에 달했다. 그들은 3만 년의 결혼생활을 지켜왔고, 3천명의 아이를 키워냈다. 이 책은 이 엄청난 시간의 퇴적층에서 발굴된 보석 같은 교훈들을 담은 이별 책이다. 지은이 칼 필레머 출판사 토네이도

꾸뻬 씨의 행복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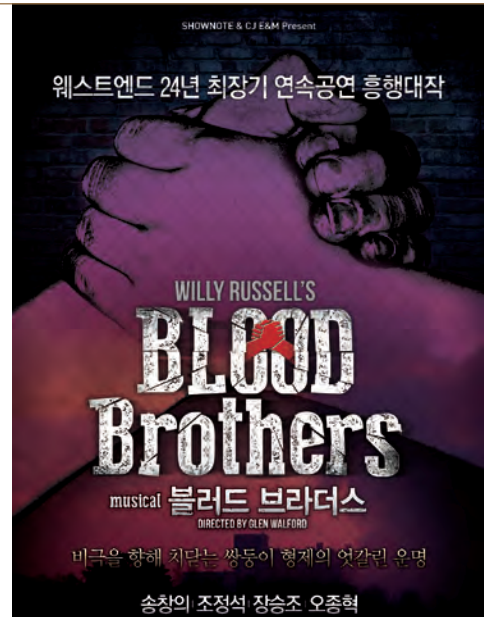


지루한 여행 서적이 아닌 행복한 여행기가 등장했다. 파리 중심가 한복판에 진료실을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 꾸뻬 씨가 들려주는 달콤한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화 소설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꾸뻬 씨의 여행은 재미있고, 진지하며, 유쾌하기까지 하다.

지은이 프랑수아 를로르 출판사 오렌지 미래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쌍둥이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려낸 뮤지컬이 공연한다.
배우 송창의, 조정석의 더블 캐스팅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만나자.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8월 예정

공연 장소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공연 티켓 R석 5명(1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는 연극 <리타 길들이기> <셜리 발렌타인>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영국 최고의 극작가 윌리 러셀(Willy Russell)의 대표작으로 쌍둥이 형제 '미키'와 '에디'의 엇갈린 운명을 비극적이지만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미 런던 웨스트엔드, 뉴욕 브로드웨이,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며 흥행 신화를 세운 명작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는 이제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국내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역사상 가장 슬프고 매력적인 캐릭터, 쌍둥이 형제의 피보다 붉고 진한 휴먼 드라마를 선보일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자타가 공인하는 섭외 1순위의 배우 송창의, 조정석이 더블 캐스팅되었다.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마다 완벽한 변신을 거듭해온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두 스타 배우가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에 출연하게 된 것.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비극적인 운명의 쌍둥이 형제 중 자유분방하고 순수한 '미키' 역을 맡아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20여 년의 세월을 특수분장 없이 오직 연기력으로 열연할 예정이다. 이름만으로도 벅찬 그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는 비극의 중심인 쌍둥이 형제 '미키'와 '에디'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함께 극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작품이다. '미키'의 쌍둥이 동생 '에디' 역은 공연계 최고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뮤지컬 마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배우 장승조와 가수, 예능에 이어 뮤지컬까지 평정한 팔색조 배우 오종혁이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고, 이외에도 자타 공인 최고의 뮤지컬 배우 진아라(진복자), 구원영, 김기순, 문종원, 배준성, 최유하, 심재현 등이 출연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최고의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무대!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놓칠 수 없는 이유다. S 에디터 남윤진 도움 주신 곳 창작컴퍼니(070-4659-5250)



세월의 흔적은 지우고 피부 본연의 격은 되살리다

맑고 고아한 '순백자 피부'를 완성하기 위한
설화수의 퍼펙팅쿠션 뷰티 클래스에 다녀오다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아난티클럽 서울에서 순백자처럼 맑고 고아한 피부를 완성하는 피부 표현법을 제안하는 퍼펙팅쿠션 뷰티클래스를 진행했다. 뷰티클래스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의 완성'을 추구하는 설화수 메이크업과 퍼펙팅쿠션 소개로 시작되었다. 설화수 메이크업은 동양의 미학에서 중요시하는 조화와 균형을 철학으로 삼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날의 주인공인 퍼펙팅 쿠션 역시 피부 속부터 우러나는 건강한 윤기로 맑고 고아한 순백자 피부를 연출하는 제품이라고 소개되었다.

이어서 퍼펙팅쿠션을 활용한 광채가 우러나는 순백자 피부로 완성하는 메이크업 시연이 이어졌다. 설화수의 윤경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먼저 모델의 피부에 맑은 윤기를 더하는 미안피니셔를 피부에 가볍게 발라준 뒤 마치 백자에 유약을 바르는 것과 같이 피부를 매끄럽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CC유액을 사용해 피부톤을 정리했다. 그리고 퍼펙팅쿠션 내에 내장된 에어셀 퍼프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가볍게 터치하듯 퍼펙팅쿠션을 발라 피부 본연의 윤기와 격을 되살려주었다.

메이크업 시연이 끝난 후 클래스에 참여한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컬러를 골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벽한 커버력과 보습 지속력은 물론이고 자외선 차단과 미백, 주름개선 등의 3중 기능성을 갖춘 퍼펙팅쿠션의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은 지우고, 본연의 격은 되살려주는 설화수의 퍼펙팅쿠션은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밀착제가 유연한 필름 막을 형성해 건조해지거나 무너짐 없이 12시간 동안 메이크업 지속이 가능하며 색소를 오일이 아닌 물에 분산시키는 '수채화 공법'으로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덧발라도 들뜸 없이 깨끗하게 커버된다. 또한 퍼펙팅쿠션은 행인 한방보습제가 함유되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주고, 광채가 우러나는 투명한 피부를 완성한다. S



page 18 | **Sulwhasoo makes a connection.**

There are some people, who experienced falling in love only once in their lifetime. This is similar to a song that has a sentimental value for a singer. The heartbreaking story, as well as the adversities a person encounters, is hidden within each note of these songs. This was the issue that was covered during the interview with Moon Hee Shin, the crossover singer who sings with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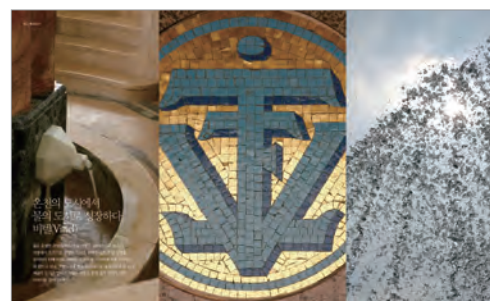
page 24 | **Quality Life**

The Korean ancestors have created the Maru as a way of withstanding the summer heat in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Maru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house, where it circulates the air throughout the place. Moreover, it is often used for family gatherings and ceremonies due to the ease of access between the rooms without having to put on shoes. The cool summer landscape has been modernly recreated in the Korean traditional Maru, which reflects the wisdom of the Korean ancestors.



page 40 | **Seeing in Detail**

The Korean ancestors used the color red to depict the hearts of the women mesmerized by such beautiful color, the devotion of the nobility to courtesy, and the hope of defeating the demons and preventing disasters. This issue explores the color red, one of the Five Traditional Colors that's so vividly beautiful and unforgettably intense, in the hot and intense landscapes of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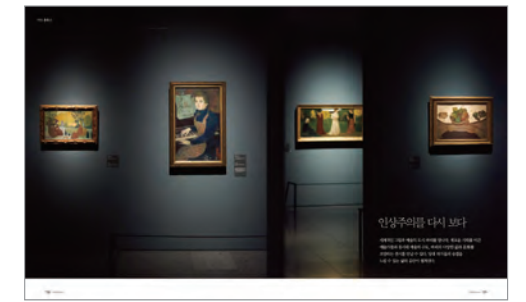


page 52 | **World Heritage**

Vittel is a small town in France known for its water. It has been popular in the Vosges Region for its hot springs since 1890. The picturesque city of Vittel preserves its natural environment, and maintains its perfectly pure mineral water source. This issue explores the story behind Vittel as one of the 3 major bottled water brands in France.

page 58 | **Art Class**

This issue delves into the artistic flow and social transition of Franc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well as the Art History book, which contains the artworks of legendary artists such as Claude Monet, Paul Gauguin, and Vincent van Gogh. In addition, the Art Nouveau craft, architecture, and photography of Rene Lalique and Emile Galle are covered in this issue. These are exhibited in the Orsay Museum of France.



page 64 | **Connect**

Yundo is the probe of Feng Sui, with 24 directions on a circle. It is a kind of "compass"? Korea's traditional compass containing the order of the universe. This issue features an interview with Sir Jong Dae Kim,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10, who successfully used the traditional Korean Yundo technique in the family business he put up to save it from disappearing, and with his son, Sir Hee Soo Kim, who has kept the family business alive.



page 70 | **Sulwhabogam**

Warm green tea refreshes the body and quenches the thirst. Noodles can be dipped in green tea in order to stimulate the appetite. The cool and flavorful green tea will make you forget about the heat during summer.



page 80 | **Sulwhadogam(雪花圖鑑)**

A poet once wrote about the beauty of the summer night. However, the tropical night is an unwelcomed guest during summer. It is possible to enjoy summer without any fan or air-conditioner, as evidenced by the Korean ancestors, so let's sit back, relax, and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traditional paintings.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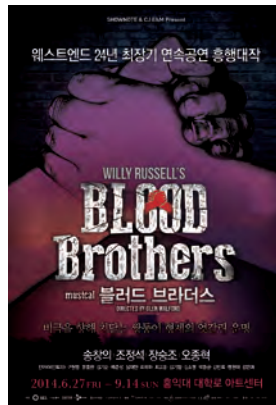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4년 8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7월 31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4년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 주는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숙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관람권(5명)

영국 최고의 극작가 윌리 러셀(Willy Russell)의 대표작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의 공연 관람권을 5명(R석, 1인 2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8월 중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흥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공연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2페이지 참조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김세진 전북 완주군 봉동읍
- 박은정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김성숙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 이묘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이현규 경기 과천시 별양로

★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